

신중년 지역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우수사례

재능을 나누는 기쁨,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자부심



신종년 지역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우수사례

재능을 나누는 기쁨,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자부심



PART 1 | 문화·사회서비스 |

Interview



참여자

이정훈 공직생활 경험을 살린 사회공헌이라 더 뜻깊어	06
한상철 작은 도서관에서 씨앗을 가꾸는 일	10
길현식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필요하다면	16
조정순 서툴게 시작한 사회공헌활동이 마을을 바꿨다	20

Case



참여자

김경란 | 김경희 | 김평규 | 이은주 | 조갑현 | 한지혜 | 윤수태 | 김세환 | 정경순

참여기관

대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 (사)국제문화교류단 |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중구자원봉사센터 | 박물관 수

PART 2 | 행정·IT·연구 |

Interview



참여자

김호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42
정상국 나이 들어도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해요	46

참여기관

토지문화재단 누군가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곳	48
읍내정보통신학교 다시 꿈꾸는 소년들의 모습을 함께 그려봅니다	52

Case



참여자

남승진 | 김성인 | 김창배 | 안영애

참여기관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 덕진품애 작은도서관 | 충남다문화가정협회보령시지회 |
춘천도시농업센터 |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

PART 3 | 상담·재무 |

Interview



참여자

심종협 |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이야말로 사회공헌활동의 전부 68

장기명 |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3번째 28년 74

참여기관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 밥, 노동, 희망 사회를 빛내는 보석같은 사회공헌 이야기 80

Case



참여자

백경옥 | 유명숙 | 박용남 | 이연영 | 홍순철

참여기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 울산여성의전화 부설 울산노인상담소 | (사)여성과나눔 보육콜센터

PART 4 | 교육 |

Interview



참여자

윤여원 | 어르신들의 행복이 나의 기쁨으로 100

정재학 | 숲과 함께 시작한 제2의 인생 106

참여기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 함께 웃고, 보람을 느끼며 다시 청춘을 꿈꾸다 112

Case



참여자

박영옥 | 양숙희 | 이경혜 | 윤경자 | 정상분 | 김문자 | 박선엽 | 박수영

참여기관

무지개 작은도서관 |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재반지역아동센터 | 충주열린학교 |

하비지역아동센터

PART 1

아모르파티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대중가수 김연자씨가 최근 유행시킨 트로트 곡 제목인 '아모르파티'는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운명에 굴복하거나 순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진정한 삶의 주체로 후회 없는 삶을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사례는 퇴직이후에도 소중한 노동으로 사회와 공동체에 공헌하며, 행복한 신중년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가치있게 만들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모르파티' 노래같은 흥겨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Amor Fati

문화·사회서비스

Interview

참여자

이정훈 | 한상철
길현식 | 조정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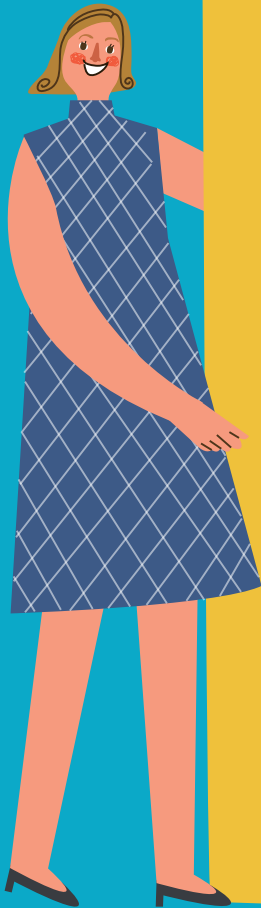
Case

참여자

김경란 | 김경희 | 김평규
이은주 | 조갑현 | 한지혜
윤수태 | 김세환 | 정경순

참여기관

대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사)국제문화교류단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중구자원봉사센터
박물관 수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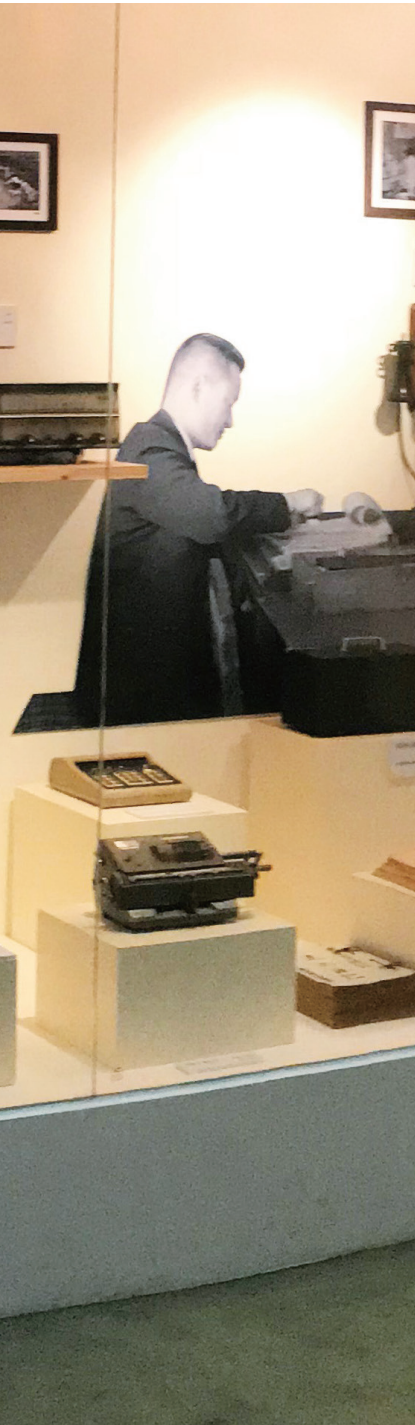
이정훈

[69세]

Interview



주요경력 충남도청 공무원 35년
활동내용 (구)충남도청 도지사실 전시실 관람객 안내 및 유물해설
참여기관 퇴직공무원 재능나눔봉사단
지자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생활 경험을 살린 사회공헌이라 더 뜻깊어

이런 사회공헌활동도 나중엔 유물로
남지 않을까요?

다음세대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울 점이 있는 교훈으로 남겠죵

이정훈씨는 30년간 충청남도청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구)충청남도 도지사실 전시실(충남도정역사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그 덕에 대전MBC방송에도 출연했다. 이정훈씨는 충청도청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 내내 사회공헌활동이 은퇴 이후 삶을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에게서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은퇴 후 딱 1년만 자유가 좋았다

이정훈씨는 충청남도청에서 30여년을 근무하고 충청남도 생활체육회에서 5년간 일했다. 충청남도 생활체육회에서 퇴직한 뒤 그는 1년 동안 마음껏 돌아다니고 게으름도 피우면서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했다고 한

다. 그런데 그러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퇴직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데, 만날 여행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영업이나 사업하면서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만 빈둥거리는 것 같고... 여행이나 쉬는 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나서 누리는 행복이지 그게 삶의 전체일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게을러지고, 몸가짐이 바르지 못해 건강도 나빠졌어요.”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그는 다시 보람을 느낄 일을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퇴직공무원 재능나눔봉사단의 소개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게 됐다.

사회공헌활동의 첫 번째 어려움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

이정훈씨는 은퇴 후 뭔가를 시작할 때 가장 힘든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다고 했다. (구)충남도청 도지사실 전시실 안내를 하기 전에 그는 초등학교 꿈나무지킴이로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했다. 이른바 학교 보안관 역할을 한 것이다.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하고 수십만 충청남도 생활체육인을 대표하는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일해 온 경력에 비해 학교 보안관 업무는 마음에 차지 않았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도 심리적으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 보면 좋은데, 자꾸 내 일이 하찮게 여겨지기도 하고 이 업무에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나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요.” 회의는 오래 가지 않았다. 학교 선생님들도 도와줬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큰 힘이 됐다. 발랄한 아이들에게서 활기를 얻고, 오가며 인사하는 아이들에게 정이 들었다. 언제 적응을 했는지도 모르게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책임감도

생겼다. 그런 보람 속에 학교 보안관 2년 활동을 즐겁게 마무리했다.

이건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야

2년동안 학교보안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마치고 다시 시작한 활동이 (구)충남도청 도지사실 전시실 안내 및 유물 설명이었다. 퇴직공무원 재능나눔봉사단의 소개를 받아 시작한 이 사회공헌활동을 이정훈씨는 ‘나에게 딱 맞는 일’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다. 30년 넘게 충남도청 공무원 생활을 한 자신이야말로 충남도청과 도지사실 유물에 얽힌 이야기를 누구보다 시민들에게 쉽고 재밌게 설명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충남도청 역사관은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하면서 대전 청사를 살려 2013년 10월 1일에 개관한 곳입니다. 일제 시대였던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도청이 이전하면서 시작된 80여년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만들었죠. 도지사실은 안내실, 접

사회공헌활동 Tip



사회공헌활동을 하려면 기존에 자신의 지위나 역할, 자존심은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자신이 기존에 해 왔던 경력을 이어서 할 수 있다면 쉽게 적응하며 할 수 있구요.





견실, 집무실, 조망대, 기획전시실 등으로 꾸며졌고요, 이곳을 거쳐 간 도지사는 총 43명으로 일제 강점기에 7명, 미군정기에는 5명의 지사가 있었어요. 특히 미군정기에는 미국인과 한국인 각 1명씩 2명의 도지사가 근무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지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엔 31명의 도지사가 구청사 도지사실을 사용했구요. 이곳은 충남도청의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으로 보존 가치가 큰 유물입니다.”

이정훈 씨는 관람객을 맞이한 듯 길게 설명을 이어 나갔다. 이 역사관에는 보존된 집무실, 접견실 외에도 도지사 임명장과 월급 봉투, 금고 등 당시에 사용한 유품과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향토사학 관련자나 연구자들이 자주 찾아온다고 한다. 시민들과 향토 사학 연구자들이 찾아오면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설명하는지를 물었다. 이정훈씨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재미있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일제 때 공주에서 대전으로 도청사가 이전할 때 이야기죠, 공주 주민들은 도청사가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대전 주민들은 찬성하면서 물밑에서 경쟁이 치열했어요. 대전청사 부지 매입에 관한 이야기도 재미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 물으니 그는 “공식 기록엔 없어요, 전설처럼 구전되어 남아 있지요, 그나마 오래 근무한 충청남도 공무원들 일부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줄때 관람

객들이 눈을 반짝인다고 덧붙였다. “안내 패널에 쓰인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행정의 추진과정, 숨겨진 이야기는 아무나 해 줄 수 없죠.” 이정훈씨는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나갔다.

오랫동안 공직생활한 곳이 유물처럼 느껴지다

긴 인터뷰를 마치며 자신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충남도청을 유물로 소개하는 업무를 사회공헌활동으로 하면서 느낀 소회를 물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내 삶도, 이런 사회공헌활동도 나중엔 유물로 남지 않을까요? 누가 나처럼 설명해주지는 않겠지만, 다음세대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울 점이 있는 교훈으로 남겠죠.” 진한 자부심과 아쉬움이 담긴 소회였다.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이정훈씨는 마지막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은퇴 후 1년은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러나 사회공헌을 하며 보람을 찾는 것이 그러한 자유보다 더 큰 행복과 건강을 준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참여자

한상철

[68세]

Interview



주요경력 대학교사서 32년
활동내용 도서관 사서업무 및 행정지원
참여기관 금호작은도서관
지 자 체 전라북도



작은 도서관에서 씨앗을 가꾸는 일

사회공헌활동은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로 시작해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눈 것도 아주 잠시, 자리에 앉자마자 한상철씨는 “안타깝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주변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안타깝단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분께 직접 작은 도서관을 안내한 경우만 벌써 세 분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업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 역시 작년부터 활동하고 있지만 일찍 참가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도 했다. 한상철씨는 인터뷰에 앞서 이런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부터 전했다. “이 일은 봉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희생하는 마음이 수반되어야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겠죠.”

아파트와 상가들이 밀집해있는 곳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채 동화책을 읽어주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이곳이야말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연히 시작한 대학도서관 사서

남원에서 태어났다는 한상철씨는 그곳에서 초·중·고를 마쳤다. 졸업 후 바로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고 얼마 안 돼 군대에 가게 되었다. 제대하자마자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일을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돈은 많이 벌수 있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가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고, 주변 추천도 있어 공직 시험 준비를 했다. 전주로 올라와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76년 전북대학교에서 교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낙방, 다시 도전한 끝에 이듬해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전북대에서 그가 처음 발령받았던 곳이 바로 도서관 행정업무였다. 도서관에서 일한 지 1

년이 지난 어느 날, 주변 직원들이 사서자격증을 추천했다. 그렇게 서울중앙도서관 사서 양성과정을 밟게 되고 사서자격증을 취득한다. 정말 우연한 기회로 얻은 자격증이었다. 운명이었을까?

자격증을 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북대학교 도서관사서 특채에 뽑히게 된 것이다. 그 뒤 한상철씨는 그곳에서 30년 넘게 사서로 일했다. 30년 사서 역사를 한 마디로 요약하기 쉽진 않지만 한상철씨는 “도서관 이용객에게 다가간 30년”이라고 말했다.

훌륭한 연구결과물을 위해 함께 뛰었다

한상철씨는 대학도서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때부터 근무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다.

그 중 대학도서관이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점이 안타까웠다.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것부터 공부했던 그에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었다.

“지금은 도서관이 많이 개방되었죠. 하지만 그때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서가가 있는 곳은 열람이 일부 제한 되기도 했고요.” 그때는 학생들이 개별로 도서신청을 하고 사서가 찾아주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일이 아주 많았다. 그러다가 차츰 서가가 개방되면서 직원과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그렇게 이용자와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아지면 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되었

다. 사서들만 알 수 있는 기호가 사라지고 이용자들이 알 수 있는 안내표시도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도서관이 전산화된 것도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사회가 개방되고 이용자들의 문의가 늘어감에 따라 도서관 사서도 점점 전문성을 요구 받았다.

일하며 제일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 논문을 쓸 때 많은 참고문헌이 필요하다. 학생과 교수님들이 도서관에 전문적인 자료를 요청을 해오면 한상철씨는 어느 대학교에 있는지 어떻게든 자료를 추적해서 도와주려고 애썼다. 자료가 해외 대학교에 소장되어 있어도, 그 학교와 협정을 맺고 있는 국내 대학에 연락해서 부탁을 했다. 어떻게든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 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호대차업무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엔 도서관끼리 서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주고받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협조하자고 했어요. 이용자 편의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일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을 교수들도 알고 감사 인사를 전한 적도 많다. “창의적인 논문을 위해서는 참고해야 하는 문헌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사서들의 노력으로 좋은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저 또한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제2의 삶을 찾는 과정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전문직종으로 오직 한 분야의 일을 했다. 그걸 당연히

사회공헌활동 Tip



사회공헌활동은 봉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동기 부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실천할 있다고, 희생이라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일 것이다.



다고 생각해서인지 한상철씨는 다른 건 도전 해보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불쑥 찾아온 퇴직으로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왜 한곳만 바라보고 일을 했 지?' 회의가 들기도 했다. 퇴직 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 시골로 귀향하거나 자영업자의 삶을 택한 경우 등 각양각색이었다. 한상철씨는 은퇴 후 일단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하려고 했다. 아내와 등산도 하고 여행도 갔지만 3개월이 지나자 자유로운 생활도 시들해졌다. 그때 처음 간 곳이 직업전문학교였다. 조경과에 들어갔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도서관

안에서만 일했던 한상철씨에게 야외활동이 태반인 조경업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금방 포기했다, '남들이 하는 것을 좇기보다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겠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다고 바로 사회공헌활동을 알게 되는 행운은 오지 않았다. 조경 다음에도 지인 소개로 청소업체 행정업무를 하기도 했고, 공장 경비업무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한상철씨는 또 많은 것을 깨달았다.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가정의 생업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던 반면 저는 절박하지 않았어요. 저하고는 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



랐던 겁니다.” 그는 ‘나로 인해 이분들의 일 자리마저 빼앗는 것이 아닌가?’라는 죄책감이 들어 바로 나왔단다. 은퇴 후 제2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 바로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사회공헌활동을 만나기까지

그 뒤로도 바로 사회공헌활동을 만나지는 못했다.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한 달에 두어 번 전주시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에게 스포츠스태킹(컵 쌓기) 수업을 하던 중 만난 동료가 사회공헌활동이 있다고 소개해 준 뒤에야 한상철씨의 제2인생 길이 열렸다.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았어요. 보는 데 도서관 행정지원분야가 있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였지요. 바로 담당자에게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담당자도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지금 그가 있는 금호작은도서관과 인연이 시작되었다.

도서관 사서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게 된 소식을 한상철씨는 제일 먼저 아내에게 전했다.

“아내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제야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되었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이디어로 도서관에 활기를 불어넣다

금호작은도서관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곳이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지었다고 한다. 자생적으로 생겨나다보니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했고, 공공적인 성격과 지

역사회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 전주시로부터 일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립으로 인정받아 근처 완산도서관으로부터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한상철씨가 금호작은도서관의 첫인상을 말했다. 작지만 장서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은 바로 서가(책장)였죠. 도서관용 서가가 아니어서 배열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아동도서가 많이 있어요. 아동도서의 특징이 얇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무릎을 탁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바로 서있는 서가를 눕힌 것. 재정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린이용 서가를 생각해낸 것이다. 아이들과 학부모도 도서관이 바뀐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다. 한상철씨는 그때 제일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또 열람 후 아무데나 꽂혀있는 책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보았던 책은 꽂지 말고 탁자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개선되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상철씨는 배열작업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전주에 있는 모든 도서관이 전산화돼 있는 상황에서 소장도서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 배열작업을 통해 이용객이 전산을 보고 금호작은도서관만 소장하고 있는 책을 찾으





러 올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큰 도서관의 경우 시설도 훌륭하고 장서도 많이 갖추고 있는 편이라 많은 이용자가 찾겠지만 여기는 규모가 작잖아요.” 또 다른 안타까움도 있다. 바로 아이들이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대부분 학원에 갑니다. 독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책 읽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는 한상철씨에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가 대학교 사서로 근무할 때 다녀온 일본 탐방 이야기를 전했다. “일본에는 마트나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교가 되죠. 요즘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주는 모습을 볼때 특히 속상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키우는 사회공헌활동

한상철씨는 도서관 사서일도 서비스업의 일종이라며 봉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기가 오랫동안 몸담은 일에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공헌활동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자신이 했던 일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봉사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사회에 은퇴한 많은 전문 인력들이 있지만, 은퇴 후 뚜렷하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했던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는 새롭게 마음먹고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가까이 뛰어들면 가능할 거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한상철씨는 기회가 되면 다른 작은 도서관에서도 활동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작년에 사례발표를 했는데 다른 도서관 관장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구나 생각했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지만 씨앗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고 싶습니다.” 아직도 그의 열정 가득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봉사라는 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지만, 내가 제일 변화됨을 느껴요.

작은 일에 일조하며 은퇴 후 매일 매일 보람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필요 하다면

34년을 오롯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길현식씨는, 정년퇴직 1년 4개월을 남겨놓고 개인사정으로 명예퇴직을 했다. 34년 경찰로서 소임을 성실히 다한 그다. 길현식씨는 퇴직 후에도 자신의 경력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하고 있다. 직업 특성상 법과 법의 연결고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소비자 분쟁상담소'에서 피해자들을 적극 돕고 있다.

먼저 길을 걸어온 선배의 권유

길현식씨와 마주 앉은 뒤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물었다. “저는 34년을 보낸 경찰이라는 경직된 조직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몇 개월을 자유롭게 지내다보니 자유로운 생활은 현실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더군요. 저의 재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는 사람이 너무 일거리가 없으면 사는게 무의하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이후 먼저 은퇴한 선배들과 자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퇴직공무원 재능나눔봉사단'에 가입했고, '사회공헌활동사업'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재직 당시엔 경력이 쌓이면 쌓인 만큼 일정한 수입과 대우를 받았어요. 예전에는 00회사에 00소속이라고 나를 설명할 수 있었다면 정년퇴직을 하고 난 후엔 어디에도 소속되어있지 않는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은퇴 후의 상실감, 허탈감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른다. “저는 그런 감정을 먼저 느낀 인생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하는 봉사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라며 스스로를 낮췄다.

작은 것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언제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잘 알지 못하고 어려워서 보상받아야 하는 당연한 보상을 소비자들이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

참여자

길
현
식

[61세]

Interview



주요경력 경찰공무원 34년
활동내용 소비자분쟁상담, 물가안정캠페인 홍보활동
참여기관 퇴직공무원 재능나눔봉사단
지 자 체 대전광역시 유성구

갈 때가 많아 안타까워요. 그럴 때 주저 하지 말고 상담소에 문의했으면 해요. 상담소에 문의하면 법률에 대한 해석부터 행정절차가 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거예요.”

길현식씨는 적게는 일주일에 두 번, 많게는 세 번씩 사무실로 출근한다. 매일 아침 그는 게시판을 통해 상담이 필요한 사연들을 마주한다.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명쾌한 법적 판단을 댓글로 알려주고,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와 직접 동행하여 불법을 일삼는 공급자와 싸우기도 했다.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한 소비자 분쟁사건이 330여건이 넘는다며 길현식씨는 뿌듯한 듯 이야기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캠페인활동

‘대전 충남 소비자연맹’에서 회원들과 함께 ‘소비자 물가안정’과 ‘음식문화 개선’같은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는 길현식씨는 “혼자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함께 홍보하며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줘요”라며 ‘함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로 역전시장, 중앙시장 등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활동하는 길현식씨에게 어려운 점은 없었느냐는 질문을 했다.

“응원해주시며 박수쳐주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구호를 외치며 피켓행진을 하다보면 시끄럽다고 눈살을 찌푸리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캠페인에 대한 시민들의 선입견이나 불만이 가끔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라고 그는 답을 했다.

자랑스러웠던 경찰에서 존경 받는 아버지가되다.

길현식씨는 퇴직 공무원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이 가능하다. 재취업에 대한 부담이나 생활의 불편함이 없어 자신을 위한 취미나 여가 생활로 삶을 채울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민의 지팡이’로 39년을 봉사한 것도 모자라 ‘소비자 분쟁 상담소’에서 억울한 시민을 도왔다. “저의 능력이 주어지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비자상담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단체에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라며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모습을 내비쳤다.

이렇게 확고한 모습으로 제2인생을 살아가는 길현식씨를 자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자녀들은 당연히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취미생활 하면서 쉬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공헌활동을 하니 걱정하면서도 의미있는 일을 한다고 자랑스러워하더라” 이렇게 말하며 길현식씨는 멋쩍게 웃음을 지었다. 자식들에게 존경 받는 아버지로써 길현식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덩달아 기쁨을 느꼈다.

망설이고 있다면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하는데 처음엔 누구나





서툴다. 길현식씨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소비자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도 많이 했었죠. 그러나 한건, 두건 상담을 진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제는 상담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만큼 익숙해지고 노하우가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다는 길현식씨는 내친김에 한마디 더 보탤다. “정년퇴직한 훌륭한 인재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죠. 직장다닐 때도 사회에 공헌했지만, 은퇴 후에서 보람을 찾으면서 사회에 공

헌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우리 같은 신중년들이 이런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준다면 좀 더 좋은 사회가 일찍 되지 않을까요?” 100세 시대에, 퇴직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길현식씨는 주저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좋은 ‘롤모델’이자 ‘나침반’이 되고 싶다고 했다. 먼저 은퇴한 선배들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회공헌활동 Tip



봉사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면 작은 일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짧은 사회공헌활동에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재능기부하는 봉사의 즐거움을 알게되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해져요.



서툴게 시작한 사회공헌활동이 마을을 바꿨다

‘우리 동네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모두가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생각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생각은 늘상 하지만

정작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전의

조정순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참여자

조
정
순

[58세]

Interview 주요경력 신문광고업 5년, 기자교육이수



활동내용 용운마을신문 제작 및 편집

참여기관 용운종합사회복지관

지 자 체 대전광역시

‘왜 이 미관이 흉한 학교 담벼락이 방치되어 있을까? 예쁘게 칠하면 좋을 텐데...’

‘왜 저 신호등은 저렇게 가려져 있지? 저렇게 가려져 있으면 사람들이 신호가 바뀐지 알기 힘들 것 같은데?’

‘왜 놀이터 옆 쓰레기 버리는 장소는 저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져 있을까? 아이들이 노는 곳인데 조금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동네를 돌아다닐 때마다 개선해야 할 것들이 조정순씨 눈에 보였다. ‘우리 마을을 조금 더 나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지?’라는 고민을 하던 중 그 실천의 방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조정순씨가 늦은 나이에 기자가 된 이유다.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지만, 쉽지만은 않았다.

조정순씨가 기자가 된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신문 광고업에 종사하면서 실제로 기자들과 만나 교류를 할 일이 잦았다. 자연스럽게 글을 통해서 세상을 더 낫게 바꾸는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이 커졌다. 광고업에 종사했지만, 기자라는 직업이 갖는 매력에 관심이 컸던터라 틈틈이 그들의 기사를 읽으면서 ‘나라면 이렇게 기사를 작성했을텐데’라며 기사를 비평하곤 했다. 그때의 습관이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기자라는 전문 직업은 이룰 수 없는 꿈만 같았다. 마을을 바꾸는 글을 기사로 써 보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을 때,

동네에 붙은 “마을 신문 기자 모집”이라는 현수막 광고가 조정순씨 눈에 들어왔다. 조정순씨는 그 순간을 운명같은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광고를 보고 설레긴 했지만, 기자라는 직업이 전문적이고,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망설였다. 망설이고 고민하던 조정순씨는 결국 신청 마감 마지막 날 용기를 내어 신문기자 지원 신청서를 냈다.

마을신문 기자가 된 뒤 연습 삼아 써 본 기사는 엉망이었다. 기사의 기본인 육하원칙을 지키기도 어려웠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팩트를 보도하는 일도 막막하기만 했다. 기자로서 기사를 쓰는 일이 무거운 책임을 갖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조정순씨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기자교육을 신청해 열심히 참여한 뒤 수료했다. 관련 서적도 찾아서 읽었다. 그것도 부족해서 기사를 쓰다가 막히면 아는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기사를 써야하는지 하나하나 물어가며 기사 쓰는 법을 터득했다.

마을의 해결사 혹은 골칫덩이

이렇게 기사 쓰는 법을 배우고 터득한 이후 흉하게 방치된 학교 담벼락, 무분별하게 늘어선 주차 차량들, 잘 보이지 않는 신호등, 놀이터 옆에 널브러진 쓰레기 등 그동안 보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기사로 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전 동구 용운복지

관 앞은 위험한 도로였다고 한다. 보행신호 등인 초록불은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다리 에만 불이 깜빡였고, 전봇대에 신호가 가려 서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건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신호등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고발하는 '조정순 기자'의 기사가 담긴 <용운동 신문고>가 동네 집집마다 우편함에 꽂혔다. 기사는 힘을 발휘했다. 몇 달후, 도로교통공단은 신호등을 모두 수리하고 전봇대가 가리지 않도록 신호등을 이전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직접 쓴 내 글로 동네가 바뀌다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열과 뿌듯함을 느꼈죠. '횡단보도 그 뒷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신나게 후속보도도 썼어요"라면서 조정순씨는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하지만 마냥 보람을 느끼는 일만 있지는 않았다. 힘이 빠지는 일도 있었다. 놀이터는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뛰어노는 곳이어야 하는데, 용운동의 한 놀이터는 단판이었다.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이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기란 쉽지 않았다. 게다가 놀이터 옆 쓰레기 버리는 곳에는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고, 무단투기 쓰레기도 자주 보였다. 조정순씨는 당연히 바뀌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서 용운마을 신문에 기사를 썼다. 하지만 놀이터 환경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담당공무원도 쉽게 나서지 않았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주변이 더 더러워진다

며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다. 구청에 해결 방법을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각성도 촉구했지만, 크게 바뀌지않았다. 기자로서 좌절을 맛본 사례다.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기에

그렇다고 조정순씨는 절망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 때문이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골목에서 들린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취재를 해보니 아기를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어린 산모가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며 저녁마다 밖으로 나와 서럽게 통곡하는 소리였다. 사연 많은 산모를 위로하고, 어린 산모를 돕기 위해 마을신문에 기사를 냈다. 작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호소하는 기사였다. 기사가 나가고 며칠 후 조정순씨에게 산모를 돕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산모가 어린 동생,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잘 버티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며 후원금을 내겠다고 했다. "정말 작은 기사잖아요. 그런데 후원금을 보내주는 분들이 나타났고, 어린 산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라며 조정순씨는 그때를 회상했다. 옆집에 손가락이 몇 개인지 훤히 꿰던 시대는 이미 사라졌다. 옆집 사람을 봐도 인사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팍팍한 세상에서 마을신문 기사로 마을의 소식을 나누고, 이웃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을신문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만큼 마을신문 기자로서

사회공헌활동 Tip



책임감이 중요해요.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기자라는 마음으로 해야 해요.



책임감도 무겁게 느끼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마을과 함께

조정순씨가 기자 활동을 시작한 2014년, 가족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하지만 조정순씨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읽고, 기사를 통해서 마을이 바뀌는 걸 직접 보면서 가족이 가장 열심히 응원해준다고 조정순씨는 행복한 표정으로 얘기했다. 가족들도 마을을 돌아다니는 사건사고를 목격하거나 주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거나, 꼭 고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사안을 보면 그에게 제보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했다.

마을을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기쁨

인터뷰를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만난 동네 주민들은 조정순씨를 ‘마을 지킴이’, ‘마을

보안관’, ‘해결사’라고 불렀다. 이제 좋은 소식이란 곳은 소식이란 동네 주민들은 조정순씨를 먼저 찾게 되었다. 동네 주민들의 이런 호응에 ‘그저 자신이 좋아서,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고 아직 많이 부족하데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감사하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조정순씨에게 사회공헌활동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물었다. “저의 사회공헌활동이 마을을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게 큰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하고 싶던 일을 사회공헌활동으로 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좋게 만드는 조정순씨야말로 인생의 절정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멋진 기자 조정순과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는 용운동을 기대해본다.

복지사각지대 주민에게 희망의 끈이 되다

주요경력 생활관리사 10년

활동내용 복지사각지대 방문 및 조사활동

참여기관 영도구 신선동 주민센터

지 자 체 부산광역시



생활관리사 10년 경력을 활용하다

저는 지역에서 10여 년간 생활관리사로서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과 생활을 돌봐 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 왔습니다. 2017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되었지만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주민센터 소개로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살던 동네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살던 동네라는 익숙함 때문에 일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은 어떤 서비스가 있는 지조차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전수조사 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별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업무는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10여 년간 일해 온 생활관리

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이면서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반갑게 문 열고 맞아 주시는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안내 후 대상 주민을 재차 방문하기도 하는데,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주민은 정말로 기쁜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인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반겨 주시는 주민들을 만날 때가 가장 기쁘고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저장강박증 및 쓰레기 무단 투기로 집안이 엉망이던 주민의 집을 청소해주기도 했습니다. 집안이 더러워 타인의 방문을 꺼려하고 경계를 하던 주민을 주민센터와 논의하여 여러 번 상담하고 설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시던 분도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설명하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청소를 진행하면 주민도 좋아하고 이웃들도 좋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어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의
온기가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합니다. 이런 집을 안부 차 방문하면 이제는 경계하지 않고 주민께서 반갑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이 분은 여전히 집안 곳곳에 더러운 물건을 쌓아두며 이웃주민과 불편한 관계로 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특별한 경험

이렇게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동네 주민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참여한 활동이었는데도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저에 활동은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온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은 아주 특별한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생활관리사로 일하면서 그리고, 이번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네에는 이웃과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어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의 온기가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참여자

김경란

[54세]

[57세]

참여자 김경희

박물관은 역사와 문화의 보고

주요경력 문해교육 강사 7년
활동내용 어린이체험관 체험
안내와 전시실 해설
참여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지자체 전라남도 목포시

누군가를 위해 비워놓은 나의 주말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며 몇 해 동안 박물관 해설 공부를 해
왔습니다. 박물관 해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
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던 저
에게 사회공헌활동으로 박물관해설의 업무
가 주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엔 쉬고, 제 할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공헌활동 교육을 받고 나니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기왕에 공부해 온 것을 제대로
실력 발휘 해 보자는 마음도 들었고, 관람객
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장 쉽고 재미있게 이해
할 수 있는 해설을 해보자는 각오도 생겼습니
다. 이렇게 저의 사회공헌활동은 시작되었고,
쉬는 날로 생각했던 주말은 박물관을 찾아오
는 누군가를 위해 항상 비워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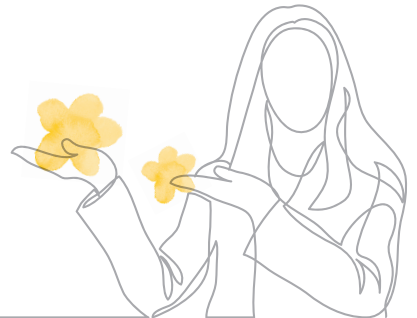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전시실에는 수중문화재가 많이 전시되어 있
습니다. 목포 앞바다에서 건진 다양한 유물
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런 유물들은 각각
만들어진 시기와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학생들이나 지역의 어르신들이 전
시실에 찾아오면 이런 유물을 설명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유물마다 각각의 사연과 가

치를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유물의 질
을 바탕으로 당시의 문화적 수준을 가능하여
설명해주면 관람객들이 이해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때론 말로 호응을 해
주었습니다. 지역의 박물관이나 유물 전시관
은 그 지역에서 발굴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과거 역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학생들에게 유물
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줄
때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자부심도 실려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오셨을 때는 어르신
들이 살아오면서 사용했던 그릇이나 도기 등
과 빗대어 도자기 유물을 설명해 주기도 했
습니다. 제 부족한 설명이 찾아오시는 관람
객들에게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사
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작은 기여
를 했다는 점에서 뿌듯함과 자부심도 느낍니
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공헌 활동은 노화막는 보약

주요경력 공무원 33년
활동내용 관광정보 제공 및 복지시설 멘토 활동
참여기관 지방행정동우회 목포시회
지 자 체 전라남도 목포시

화려한 백수를 벗어나다

충실하게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온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점차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걸 느끼면서 더 이상 화려한 백수로 남아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이 허락만 한다면 끊임없이 활동적인 도전이 필요하고, 33년을 넘어 계속 지역에 필요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의지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지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회공헌활동이었습니다.

지역을 위해 뛰어다니다보면 힘든 줄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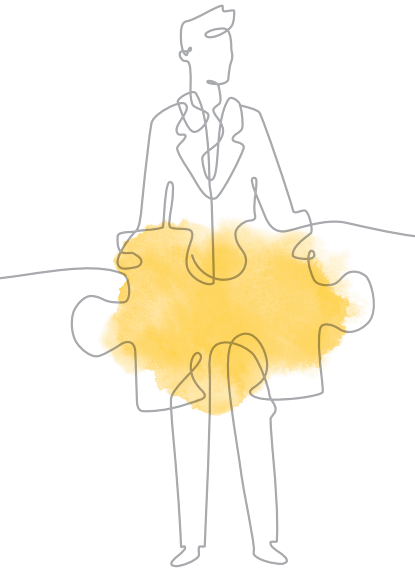
제가 사는 고장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목포시의 역사와 관광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달산, 갯바위, 자연사박물관 등 명소를 누비며 저의 설명을 통해 목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관광객분들을 볼때마다 지역에 이바지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합니다.

관광정보 안내뿐만 아니라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멘토 활동을 하면서 각종 행사 진행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똑같은 시선이 필요한 장애인들과 함께하면서 저도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제가 필요한 곳에서 봉사를 한다는 생각에 힘든줄도 모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노화를 막아주는 보약, 사회공헌활동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보람있는 일과 봉사활동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부터는 하루하루 활력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선후배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사회공헌활동이 마치 저의 노화를 막아주는 보약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에 화려한 백수로 남는 게 아니라 늘 지역에서 쓰임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 노년이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미용재능 기부로 보람을 느꼈던 소중한 시간

주요경력 미용사 17년
활동내용 복지센터 이용 노인대상 미용서비스 제공
참여기관 효림 복지센터
지 자 체 전라북도

생각했던 일을 시작하다

미용기술을 배워 미용사로 17년을 살아왔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제가 가진 미용기술로 돈을 벌어 나에게만 쓰는 게 아닌,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을 통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어르신들의 미용을 해줄 수 있는 전문경력자를 찾고 있는 복지센터와 연결이 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서비스 활동과 복지센터 등으로 이동해야 할 때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기분

처음에는 부모님 같은 분들인데도 너무 낯설었습니다. 많이 모여 계실 때는 더더욱 낯설었습니다. 때로는 어르신들 안에 있으니 제가 훨

씬 젊어 보이는 것 같아서 싫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잠시였고, 활동이 끝나고 돌아갈 때는 저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조금씩 성숙해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7세의 적잖은 나이이지만, 어르신들에게 제가 가진 것을 베풀 때는 제 나이가 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더해 갔습니다. 예쁘게 해달라며 때때로 사탕을 입에 넣어 주시는 등 만날 때마다 고맙다며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갈수록 제가 가진 미용기술이 더욱 더 값어치가 있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을 어르신들께도 받으니 기쁘고 그 분들의 아름다움과 단정함에 제가 한 몫 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혹은 나이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재능을 나누고 살면 나와 내 이웃이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것 또한 느꼈습니다.



참여자

이
은
주

[58세]



보람찬 인생을 위한 새로운 과정과 도전



주요경력 법무부공무원 37년, 무등산사랑 환경대학 수료
활동내용 무등산 사랑 보호활동 및 지킴이
참여기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지 자 체 광주광역시 복구

정년 후 광주를 상징하는 무등산의 지킴이로 37년간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정년퇴임으로 마무리하고 여유가 생기면서 호남의 진산이자 빛고를 광주를 상징하는 영산(靈山)인 무등산을 자주 찾았습니다. 무등산에서 퇴직자 동료들과 다정했던 옛 친구들을 만나 자연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무등산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서 무등산사랑환경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무등산의 생태와 숲, 가사문화와 누정문화, 무등산 옛길과 무돌길 탐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하며 새로운 생활의 터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경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더 배움을 이어가고 싶어 무등산 해설단에 지원하여 무등산 해설사와 무등산 무돌길 해설사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무등산 지킴이로서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던 중 조금 더 보람차고 즐거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 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문화유산을 알리는 자부심 요즘 들어 광주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무등산과 무돌길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탐방객들에게 무등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소개하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생활 문화의 소통의 길인 무돌길을 흥미진진하게 해설하면서 찾아오신 분들이 무등산의 진가를 느끼면서 다시 찾고 싶은 무돌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등산 지킴이로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자연문화유산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참여자

조
갑
현

[62세]

음악에 대한 열정 어르신들의 감성을 깨우다



주요경력 음악학 석사, 합창단 지휘
활동내용 어르신 대상 성악 앙상블 합창지도
참여기관 익산시고령자취업지원센터
지자체 전라북도

언젠가는 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계속한 음악공부

저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음악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음악선생님은 되지 못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세부터는 피아노를 공부했고, 결혼 후 30세 후반에 음대에 들어가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50세가 넘어서는 지휘자로서 전문 지식을 좀 더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를 공부하며 음악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음악에 대한 공부를 놓지 않았던 것은 기회가 된다면 저의 재능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소년소녀의 감성을 찾아드리다
합창을 지도받는 성악 앙상블 반 수강생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70세~80세 사이입니다. 가

곡이나 건전가요 등을 함께 부르다보면 소녀의 감성을 느끼게 되는 시적인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우리 나이에 부를 노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모두 나이를 잊으세요. 60대는 16세, 70대는 17세. 80대는 18세 소년 소녀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좀 어색해 하시면서도 소녀의 감성을 되찾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며 기뻐합니다. 앙상블로 처음 모였을 때는 연세도 많으시고 음악공부는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아 음정도 박자도 잘 맞추시지 못하고 소리도 거칠어 때로는 낙심도 했지만, 꾸준히 발성훈련, 음정훈련, 리듬훈련 등을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하니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배운 재능으로 어르신에게 젊음을 선사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참여자

한
지
혜

[64세]

작은 도움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에 감사함

주요경력 동화구연지도사
활동내용 구연동화 활동 및 시설관리
참여기관 부평건강가정지원센터
지 자 체 인천광역시 부평구



혼자가 아닌 함께

저는 부개동 기적의 도서관에서 10년 넘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구연동화와 그림놀이를 해왔습니다. 더불어 학부모님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공헌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회공헌을 할 수 있을까 혼자서만 고민하던 차에 사회적 협동조합인 일터와 사람들에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여 만사를 제쳐두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봉사로 행복해하니, 감사한 마음

제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찾아온 기회인 만큼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연동화와 같이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더불어 그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봉사인 만큼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청결유지와 정리정돈을 하면서도 내

아이가 가지고 논다고 생각하며 관리하다보니 어느새 이용객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봉사하는 제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차고는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에 비록 작은 도움이거나 제 힘을 보태고, 제 작은 힘 덕분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일터와 사람들의 기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재능을 나눌 수 있음에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여자

윤수태

[50세]

늦게 이룬 무대의 꿈, 늘 즐겁습니다



주요경력 교사

활동내용 공연활동 기획 및 연출, 공연교육 진행

참여기관 온사랑복지회

지 자 체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 간직해 온 문화예술의 꿈

교사생활을 하면서 틈날 때마다 시와 수필을 썼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경상북도와 대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 풍경들을 토대로 예술에 대한 꿈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온사랑복지회에서 문화예술공연 활동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으로 펼치게 되었습니다.

모두 부대끼며 함께 만드는 성취감

저희 연극팀은 심각한 사회문제나 전통시장 살리기 등 사회이슈를 주제로 역할극을 만들어서 노인복지관이나 희망단체를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문화예술 경험을 살려서 음향과 연출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공연을 실감나게 만들기 위해 적절한 음향을 만들고, 여러 단원들을 이끌며 연습을 하고 대본을 수정하면서 더 좋은 연극을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노력에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연극을 만들기 위해 관련 공부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원들과 조율하고, 거기에 더해 공부를 하다보니 힘들 때도 많지만 사회에 공헌을 한다는 생각만 하면 절로 힘이 나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노년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작년 추석 연휴 때는 김광석거리 콘서트홀에서 '봉이 김선달' 연극공연을 하며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공연 요청이 들어와 계속해서 의지를 다지며 더 좋은 공연을 위해 단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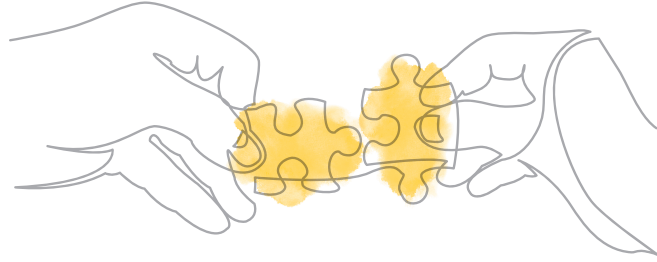
매일매일이 보람찬 일상이 될 수 있게 해 준 사회공헌활동에 정말 감사합니다. 더 이상 노년이 소극적이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 많아져 노년 인구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자

김
세
환

[78세]

받은 도움을 되갚기 위한 봉사활동



주요경력 학교 집단상담 6년, 사회복지상담사1급, 사회복지사 2급

활동내용 관내 사각지대 대상자 가정방문 및 상담

참여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행정복지센터

지 자 체 부산광역시

사람들과 공감을 하며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닫다

어린 시절 어렵게 살면서 이웃들로부터 많은 정서적·물질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반드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늦게나마 기회가 찾아와 사회복지상담을 공부하게 되었고, 문제청소년 부모 상담과 학교 집단 상담 봉사활동을 하면서 복지통장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통장 활동이었지만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의감이 들 때 우연히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따뜻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30년간 같은 동네에서 거주했지만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공헌활동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특히 전수조사를 통해서 더욱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후된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을 돕고자 집수리 봉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어르신은 집안에서 거동하는 것이 한결 편안해졌으며 저 또한 행복해졌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지만 사회공헌활동사업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면서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복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따뜻함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감사합니다.

참여자

정경순

[55세]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의 별을 함께 쏘다

지역생태계 복원을 위해

대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를 홍보하기 위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 회원 상호간의 협동 정신에 기초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견인하고, 연대와 협력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연대 정신을 알리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넓히는 것이 실질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문화센터' 모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니즈를 반영

대구 동구 메디밸리로 18, 1h 천년나무 10단지
커뮤니티센터 2층

대 표 자 김지영

활동내용 프로그램 보조 및 회원관리

참 여 자 4명

지 자 체 대구광역시 동구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듣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생산해 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서의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과의 커뮤니티가 더욱 돈독해졌지만 수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취약한 구조로 문화센터의 운영상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회원응대 및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보조강사로서의 역할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참여자분들과 함께

사회의 구성원들의 니즈는 점점 더 다양화되고, 개별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로서 참살이를 시도한다는 것이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각자의 밥벌이와 기업의 운영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에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생

참여기관

대구동구 사회적경제 협의회

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여러 주민 분들과 함께 사회적경제문화센터를 도전하려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셨지만 다시 생각해보라는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현재 문화센터는 지역이 원하는 각각의 모습으로 이미 많이 생겨났던 소위 레드오션이었기 때문입니다.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한 문화센터였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50여개 강좌를 홍보하게 되었고 25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개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지역주민 1명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수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보니, 운영비와 프로그램 진행시 필요한 인건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냉방비 걱정을 하게 되었고, 주말 프로그램도 개설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고용되었던 직원은 과부하를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지인으로부터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경력을 사회에 공헌하는 것으로 참여자분들의 다양한 경력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활동 영역이 주거하는 영역과 비슷하여 참여자분

들께서도 편하게 들러 커뮤니티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회원관리도 가능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마을에서 사회적경제를 알리는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기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많은 분들께서 답을 해주셨지만 참여자분들의 경력과 맞게 될 업무를 매칭하여 네 분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보니, 지역 주민회원을 대하는 자세도 굉장히 호의적이고 친절하며 전 학기에 비해 1.5배 이상의 회원이 증가할 만큼 그 성과도 괄목할 만 합니다. 먼저 회원분들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 진행보조와 회원관리 등 행정일도 도맡아 해주고 계십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지역주민이 서비스하는 형태가 바로 사회적경제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바쁜 날이지만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참 모습이 아닌가!'라는 자부심으로 문화센터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처음에는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에 생소해 하셨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공동체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시고 오늘도 지역사회를 위해 자리를 지켜주시는 참여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외된 사람들도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국제문화교류단은 평등하고 다양한 문화에
술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기부 네트워크를 운
영합니다. 참여자들은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멘토가 되어 멘토링 활동, 청소년지도와 상
담활동을 진행해 주셨고, 음악적 역량을 투
자하여 소외계층과 취약계층들에게 음악 활
동을 지원함으로써 공연을 통한 즐거움과 문
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행정능력 뿐 아니라 활력을 더해준 선생님들

언제나 떠들썩하게 등장하시는 이영화 선생
님은 지친 하루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웃
음을 선사해 주셔서 선생님이 출근하시는 날
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진답니다. 멋쟁
이 이연영 선생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열정적
이시며 꼼꼼하게 업무를 도와주시고 결혼 경
험이 없는 젊은 직원들에게 청소년의 태도와
인성에 대한 정보와 대처방안들을 자연스럽
게 코칭해 주셔서 청소년 진로교육활동의 설
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프로그램 진행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높아 프
로그램 진행자들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었
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 온 업무능력을 우리
젊은 직원들에게 스토리텔링으로 가르쳐주
신 이정민 선생님, 사업별로 행정업무처리 방
법을 가르쳐 주신 이경희 선생님, 문화예술사
업에 대한 조언과 행정수행능력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도 해주신 박교현 선생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요양원 공연 봉사를 해주

신 연주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회공헌활동에 참여기관으로써 함께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
고 '사람이 자원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
게 되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어르
신들에 대해,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생
각도 바뀌었습니다. 봉사 활동하던 요양원에
서는 지속적으로 음악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
고, 청소년들은 할아버지 선생님 언제 오시느
냐고 물어봅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선생님들
로 항상 왓지떨떨한 사무실이 좋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때마다 저도 이 사업의
담당자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합니
다. 사회공헌활동참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생 선배들을 보며 느끼는 사람의 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54-6 대림빌딩 401호

대표자 하은숙

활동내용 청소년 진로직업멘토 및 문화예술기부

참여자 45명

지자체 대전광역시



참여기관

(사)

국제문화
교류단



함께 만드는 건강한 우리 마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104번길 10

대표자 조옥화

활동내용 어르신 재활소모임 및 행정지원

참여자 2명

지자체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의 손으로 지키는 구민의 건강

인천평화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협동조합입니다.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나누고 협동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지역보건복지활동, 조합원자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업은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실무경력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 구민들의 도움을 얻으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본 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도움의 실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들의 활동에 힘입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재활소모임 <등대>를 운영하고 간식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현장의 차도우미로서 안전을 지켜주시거나 설문지 작성, 서류 정리 등 문서 작업을 하시는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얻었습니다. 곳곳에서 참여자분들이 흘린 땀 덕분에 부평구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살고 있는 지역의 비영리 협동조합에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해서 할 일이 있어서 좋고 부평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도울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더군다나 재활모임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운동, 만들기 등도 같이 하고 맛있는 영양 간식도 해드리면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들이 남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어르신들이 참여자들에게 고마워하시는 걸 보며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는 말을 되새기게 됩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아를 실현하고 지역사회는 긴요한 도움을 받는 선순환이 계속 되길 바랍니다.

참여기관

인천평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독거노인을 만나는 걸음마다 두텁게 쌓이는 정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1960 중구자원봉사센터

대표자 윤보경

활동내용 독거노인 케어

참여자 45명

지자체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이 행복한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중구자원봉사센터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하여 참여 인력의 전문적 능력을 다양한 분야에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역 사회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구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 고독사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참여자 선생님들을 파견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자 선생님들은 1인당 다섯 분 정도의 독거어르신을 관리하시며 주 2회 이상방문, 2회 이상 안부확인 하시며 치매예방을 위한 각종 미술 치료, 손마사지, 건강체조 등을 가르쳐드리며 도시락 등 각종 부식 등을 전달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김장나누기, 지역마을축제 등의 연합자원봉사활동에 파견되어 다양한 행사에서 전문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식지 않는 봉사의 열정

독거 어르신들의 특성상 방문해야 되는 집의 환경이 좋지 않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에 위치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방문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더운 날씨, 혹은 한의 날씨에도 꾸준히 어르신들을 방문하십니다. 혹여나 연락이 닿지 않으시면 걱정이시면서 오후에, 저녁에, 밤에까지 재차 방문하시며 안부를 확인하시는 선생님들의 열정에 늘 감동합니다.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또한 적지 않은 연세를 갖고 계시기에 선생님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여름휴가와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기간 등 활동 휴지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오면 독거 어르신들은 너무나 선생님들을 그리워하십니다. 그만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모두 건강하셔서 많이 많이 오래오래 활동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여기관

중구
자원
봉사
센터

소통과 공감으로 박물관의 가치를 더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186길 79

대표자 이경숙

활동내용 관람안내 및 프로그램 진행

참여자 6명

지자체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의 전통문화교육을 위해

박물관 수는 전통문화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2010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화려한 자수와 화문을 통해 삭막한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좋은 기운을 얻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자수와 민화를 콘텐츠로 사회기반시설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지역의 발전과 소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여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교육기부지원을 통해 전통교육을 통한 인성과 창의성 개발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고 또한 양질의 수업을 위해 교구재 준비 및 프로그램 개선 등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자분들께서 그동안 쌓았던 여러 경력들을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사회공헌의 의미에서 개인의 삶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사

회에 환원되리라는 바람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참여자분들께서는 학생들이 관람과 수업 중에 가지는 질문이나 느낀 점을 함께 공유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아이들이 수업 현장에 활기를 띠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유물 관람안내 진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적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물관이 마련한 강의 특성상 바느질 및 전통교육의 수업재료가 필수적입니다. 학생 수와 강의프로그램에 맞게 교구재를 준비해주셔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박물관의 사회공동체의 기능과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어서 이러한 제도가 가지는 공공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경력과 풍부한 경험과 연륜이 세대를 뛰어 넘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박물관을 찾는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주시는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앞으로 더욱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역할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PART 2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3가지 이유

퇴직 전까지 힘들게 일했는데, 다시 일하는게 인생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일찍이 철학자 볼테르는 일은 권태, 타락, 빈곤 세가지 악덕을 몰아낸다고 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면 건강, 사회적 관계, 보람이 생긴다”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Work

행정 · IT · 연구

Interview

참여자

김호진 | 정상국

참여기관

토지문화재단
음내정보통신학교

Case

참여자

남승진 | 김성인
김창배 | 안영애

참여기관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덕진품애 작은도서관
충남다문화가정협회보령시지회
춘천도시농업센터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



Work

행정 | IT | 연구

노원50플러스센터
Nowon 50 Plus Center

가정
송
경
로
양

참여자

김
호
진

[64세]

Interview



주요경력 금융업 39년, 블로그 교육 수료 및 인턴활동
활동내용 노원50플러스센터에서 시니어 대상으로 블로그 강의
참여기관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지자체 서울특별시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직장생활 마감과 동시에 인생 2막의 삶을 도전하며

활기차게, 기쁘게 살고 있는 김호진씨를 만났다.

그의 별명은 독특하게도 이장이라고 했다.

‘이장’이라니. 서울과는 어울리지 않는 직함이 생경했다. 시골마을 이장처럼 나이가 많고 엄한 분이 아닐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며 김호진씨를 만났다. 이런 걱정은 김호진씨의 손에 들린 책자와 신문을 보자 순식간에 날아갔다. 사전에 보낸 질문지에는 정성스럽게 답을 쓴 메모가 가득했다.

그의 손에 들린 노원50플러스센터활동 책자와 <시니어 타임스> 신문 여러부에서 자신의 활동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다는 김호진씨 마음이 엿보였다.

혹시 ‘시골 이장님 스타일’은 아닐지 걱정을 했다고 하자 그는 웃으면서 “왕년에 어디에서 뭘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아니에요”라며 손사래를 쳤다.

또 다른 ‘월요병’

김호진씨는 39년 동안 치열한 회사생활을 한 뒤 은퇴했다. 재직 시절에는 ‘월요병’이라는 말처럼 한 주가 새로이 시작되는 월요일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주말의 달콤한 휴식을 끝내고 다시금 치열한 직장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월요일이 다가오는데 두렵기만 했다.

은퇴 후에는 월요일이 또 다른 이유로 싫기만 했다. 월요일이 다가와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또 다른 두려움이 김호진씨를 찾아온 것이다. 은퇴 후 얼마간은 은퇴 전에 세웠던 꿈인 드럼 연주와 캘리그래피를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버텼다. 하지만 꿈꾸었던 것들을 이루고 나자 월요일마다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졌다. 그렇게 다른 삶의 활력을 찾아 헤매던 2016년, 사회연대은행과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가 주관하는 시니어 블로그 교육을 받았다. 오랜만에 찾아온 배움의 기회에 김호진씨는 마른 땅이 비를 흡수하듯 열성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블로그 교육 수료를 위해서는 한 달 반 교육을 모두 받은 후에 글을 써서 조회수 150개, 댓글 200개를 달성해야 했다. 김호진씨는 다양한 콘텐츠를 블로그에 올리며 교육을 성공리에 수료했다. 수료 후에는 우수 수강생 5명을 선정하는 인턴 중 한 명으로 뽑혀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에서 인턴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렇게 김호진씨의 월요일은 다시 활력으로 가득차기 시작했다. 협회에서 월요일마다 운영하는 월요 브런치 클럽 '비콤'(BCoM, Brunch Club on Monday)은 일요일 밤에 잠드는 순간을,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을 즐겁게 했다.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지역 시니어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친교를 나누는 비콤에서 그는 활기차게 활동했다. 인턴

활동을 하면서 익힌 수준 높은 글 관리와 협회 행사 홍보 업무 등 많은 경험들이 비콤 활동에도 도움이 됐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노원 지역 비콤의 리더인 '이장'까지 되었다. 얼핏 서울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장'이라는 직책을 김호진씨가 얻게 된 사연은 이랬다.

서로가 소통하는 창구, 비콤

“사실 이 나이에 저를 찾아주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죠. 게다가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로 같은 처지인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더니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김호진씨처럼 매주 월요일에 갈 곳을 잃은 시니어들에게 활력을 주고자 만들어진 모임이 비콤이다. 하지만 비콤은 시니어들이 한 주를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모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블로그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김호진씨가 그 의미를 설명했다.

“사실 블로그가 지금까지는 젊은이들의 전유



물로 여겨졌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 2의 삶을 살아가는 시니어 세대에게도 필요한 소통 창구예요.” 비콤에서는 오카리나, 하모니카, 퍼커션 등의 악기 연주, 사진 촬영, 영상제작 등을 서로 교육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생생한 교육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블로그를 꾸미는 일을 서로 가르친다. 블로그를 모르는 시니어들에게는 두 시간씩 1대 1강의까지 하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단지 모여서 수다를 떠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더 나아가 사회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인 비콤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시니어들을 만날 때마다 김호진씨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계속되는 행복한 도전

김호진씨는 올해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올해 4월, 시니어 세대가 직접 만드는 시니어 정보 전문지 <시니어 타임스>가 창간했다. 인터넷과 신문에 정보가 넘쳐난다고들 말하지만 정작 시니어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직장과 조직에서 얻던 정보들도 더 이상 얻지 못하는 시니어들에게는 정보 박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김호진씨는 설명했다. 그런 시니어들의 정보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 김호진씨도 <시니어 타임스>의 기자 중 한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평생 기사라고는 써본 일이 없을 텐데 힘들지는 않으세요?”라고 묻자 “각자가 할 수 있

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각자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기사를 써내면 언론인 출신인 회원이 기사 형식을 갖추도록 만들고 국어교사 출신 회원이 올바른 문장이 되도록 다듬어서 훌륭한 신문을 만든다는 설명이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각자 힘을 모아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간다고 설명하는 김호진씨의 얼굴에는 행복함이 묻어났다.

이제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 막대한 은퇴 후의 현실 앞에서 월요일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시니어들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호진씨는 그들에게 비콤같은 모임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 맞춤 정보는 정말 찾기 어려워요. 하지만 시니어들끼리 계속해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이고, 또 새로운 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비콤이잖아요.

시니어들이 정말 제 2의 삶을 잘 살고 싶다면 비콤 같은 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면 좋겠어요. 그런 곳에서는 배움도 얻고, 배운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좋죠.”

사회공헌활동 Tip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함께 배우고, 자기의 재능을 나눔으로 실천하며 제2의 인생을 멋있게 살고 싶다면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도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해요

참여자

정상국

[76세]

Interview



주요경력 공무원30년, 행정사자격증
활동내용 시민대상 무료 행정 및 생활법률상담
참여기관 동두천문화원
지 자 체 경기도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뚜뚜뚜.... 너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70이 넘는 정상국씨는 아직도 청춘이다. 퇴직 후 쉬지 않고 서예와 봉사로 정신과 육체를 단련시켜왔다. 마음을 비우고 조금이나마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다니다보면 저절로 건강과 마음이 젊어진다며 젊음의 비결을 알려주셨다.

내 나이 76세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나는 별로 한 게 없어요~” 다른 훌륭한 사람들과 인터뷰하라며 인터뷰를 거절하던 정상국씨와 인터뷰를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않았다. 올해 76세인 그는 양주 동두천 시에서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했다. 은퇴 후엔 지금까지 쉬지 않고 건축회사에서 민원상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취업상담 등 다양한 일을 했다.



“은퇴 당시 기분이요? 은퇴한 지가 언젠데! 뭐, 그때 당시는 시원섭섭했겠지~ 너무 오래 돼서 기억도 안나요” 은퇴를 하면 보통은 정신적으로 공허함이 찾아온다. 자유롭게 노후를 즐겨도 되니, 즐겁기도 하겠지만 그 순간은 잠깐이다. 매일 아침 일어났던 시간에 눈이 떠지고, 갈 곳이 없으니 허망하기만 하다. 이러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정상국씨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 왔다고 했다.

우연한 기회에 들른 행정사 합동사무실

고등학교에서 상담업무를 맡아보던 일도 퇴직하고 나서야 정상국씨는 실질적으로 은퇴를 했다. 재취업한 곳에서 은퇴 이후 동두천에 있는 행정사 합동사무실에 우연찮게 들렀다고 한다. 행정공무원으로 일했던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들른 곳이었는데 이곳은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행정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는 곳이었다.

“어느날, 우연히 행정사 합동사무실에 갔더니, 후배가 그러는거야, 이 사무실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 걱정이라고, 그래서 대뜸 행정일은 내가 공무원하면서 했던 일이고, 행정사 자격증이 있으니 내가 도움을 줄까?라고 물었지” 정상국씨는 이렇게 우연히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30여년간 행정공무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상국씨는 도움을 요청하며 사무실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행정민원 넣는 방법이나 절차를 쉽게 설명해 주었다. 때로는 직접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기도 했다.

사회공헌활동에 관심 있다면

정상국씨는 사회공헌활동 선배로서 앞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 시니어들에게 당부도 있지 않았다.

“말 그대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일로 조금이나마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돈이나 명예를 바라면 어려워요. 저는 평생 했던 행정직을 살려서 사회공헌활동을 했습니다. 행정업무에 있어 도움을 받은 분들이 감사하다며 저를 찾아올 때는 ‘내가 나이에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하고 자부심을 느꼈어요. 할 일 없이 집에만 있었다면 지금처럼 건강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배운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건강도 챙기는 이런 즐거움을 알게 해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보람으로 이끌거예요. 관심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찾아보세요.”

누군가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곳

토지문화재단은 매년 다양한 행사와 교육과정을 통해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가고 있다. 상근으로 두 명이 근무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다양한 활동경력을 가진 참여자들이 본인의 경력을 활용하여 그 성장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기관

재단법인 토지문화 재단

Interview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회촌길 79

대표자 김영주

활동내용 문화예술 창작지원 및 문화행사 운영

참여자 4명

지자체 강원도

토지문화재단은 박경리 작가가 세운 곳이다. 국내외 문인과 예술가들에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육사업도 진행해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있다.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토지문화재단은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열정과 전문적인 능력을 겸비한 참여자를 만나 그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창작활동지원과 문화공간으로서 시작 전업 작가로서 창작활동을 하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절실히 경험했던 박경리 작가는 후배 문인들과 예술가들에게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박경리 작가가 부지를 매입하고 한국토지공사에 이 뜻에 함께 해 건물을 지어주었다. 그 뒤 공간 운영을 위해 토지문화재단이 설립되었고 문화와 창작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2001년도부터 국내 문인과 예술가를 선정해 창작공간을 지원했고, 이 사업을 확장해 2008년부터는 해외작가들에게도 기회를 주었다. 또한 문화 관련포럼이나 세미나, 청소년 캠프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토지문화재단에서 하는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

2011년엔 세계작가상인 박경리 문학상을 제정해 토지문화재단이 국내·외로 하는 활동은 기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던 차에 토지문화재단 관계자들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

참여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

비영리법인으로 소수 직원이 근무하다 보니 토지문화재단은 업무가 체계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지만 실상은 닥치는 일만 하는 형국이었다. 이때 토지문화재단에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들이 왔다. 이들은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사업의 방향성까지 같이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토지문화재단에는 네 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은퇴를 하고 영어번역과 해외작가들과의 통역을 해주고 있는 김미정씨, 스페인어 교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스페인과 작가 교류사업을 위해 메일 번역을 해주는 이경희씨, 30년 공무원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업무를 맡아 도와주고 있는 신상우씨, 문화기획자양성과정 총괄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병관씨가 이들이다.

박병관씨가 마침 근무 중이어서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2013년부터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어 올해로 5년차다. 회사에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저로 29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박병관씨에게 문화재단 일은 처음에 굉장히 생소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토지문화재단의 사업 폭이 넓어지면서 자신의 경력이 도움이 되는 일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곧 그는 창작지원사업으로 체류 중인 해외 작가를 대상으로 한 달에 한번 하는 원주 투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외에 청소년

백일장, 박경리 문학상을 진행하는데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업에 있을 때 주로 했던 행정일도 도맡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질감도 느꼈어요. 그러다가 해외작가와 함께 관광하고 소통하게 되면서 점점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문학에 대해 잘 몰랐지만 작가들을 접하고 수상자도 만나면서 책 읽는 횟수도 늘었고요.” 오랜 시간을 함께한 결과, 지금은 ‘문화기획자 양성과정’까지 기획하게 되었다. “문화감수성이 풍부한 분, 문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 분, 문화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께 문화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 교육과정을 개설했어요.” 정원이 20명이지만 25명을 선발할 정도로 지역에서 관심이 뜨겁다고 한다. 지원자 중엔 작가도 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박병관씨는 “이렇게 맺은 인연으로 토지문화재단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다”며 자신이 기획한 교육과정을 뿌듯한 듯 설명했다.

이제는 동료이자 선배님으로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병관 선생님께서 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토지문화재단 권오범 사무국장이 말을 거들었다.

“문화기획과 관련된 책자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강연 주제와 강사 선정도 직접 하세요. 자료 감수도 전부 하십니다.” 긴 시간 토지문화재단과 함께한 만큼 이곳에 대한 애정



과 열정이 생겨 이를 가능케 했을 테다. “저는 박병관 선생님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이자 선배님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오셔서 여기서만 근무한 저희에게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권오범 사무국장은 박병관씨가 ‘이제는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한곳에서 일하며 배운 일에 대한 책임감이 토지문화재단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들과 소통으로 만족도를 높이다

물론 토지문화재단도 처음부터 모든 참여자들과 100%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회공헌활동 취지가 자신의 전문적인 부분을 사회에 공헌하는 것인데 참여자가 실제





말은 활동과 전문 영역이 미묘한 차이가 있어 힘든 적도 있지요.” 그래서 이후엔 참여자들과 되도록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내부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필요할 때는 참여자들과 함께 외부에서 회식을 하기도 한다. “참여자들께서 회식을 제안하셔서 처음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이 사회경험이 많아서 가능했던 제안이지요.” 그때서야 처음으로 재단 실무진과 참여자들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업무효율도 좋아졌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바람

권오범 사무국장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본인의 오랜 경력을 저희를 위해, 사회를 위해 공헌해주시는 것에 대해 무척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활동해주시는 참여자들은 정말 다양한 경력으로 여러 분야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다른 기관에서도 이러한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옆에서 듣던 박병관씨도 “주변에 은퇴한 지인 분들 중에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조금이라도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본인이 이 사업에 대해 많이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권오범 사무국장이 앞으로도 참여자들과 더 많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제 우리 재단은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행사도 더욱 다양화 했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참여자들께서 기꺼이 함께 해주셨기에 꿈꿀 수 있는 것이죠. 내년에는 문화제를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참여자들의 도움으로 도서관 정리도 했는데 박경리 작가의 자료도 함께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절히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했다. 토지문화재단의 간절한 꿈들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여기관에 대한 당부 ‘감사와 존경’

토지문화재단 권오범 사무국장이 이 말은 꼭 하고 싶으면서 입을 뗐다. “사회공헌활동을 하러오는 분들을 보면 나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엔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는 참여기관이 필요한 부분을 짚었다.

“참여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찾아오는 참여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일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정성이 있을 때야말로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분도 동기부여가 되고, 기관도 그분들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회공헌활동 Tip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참여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다. 그러한 마음이 온전히 전해져야 참여자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기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꿈꾸는
소년들의 모습을

함께
그려봅니다

참여기관

읍내정보통신학교

Interview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 12
대 표 자 이형섭
활동내용 보호소년 인성 및 직업교육
참 여 자 2명
지 자 체 대구광역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응원하고 있는 한

학교가 있다.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바람대로

될 수 없겠지만 그들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이 온전히

전해졌으면 한다.

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는 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는 기관이다.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인성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이곳에 수용되어있는 소년(이하 학생)들을 위해 기관 관계자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의 따뜻한 손길을 언젠가 이곳을 거쳐 간 학생들은 느끼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건강한 청소년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는 곳
읍내정보통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사전에 약속을 해서 민원 안내실에 대기하는 시간은 짧았지만 이곳에 수용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읍내정보통신학교에서는 엄격하게 출입관리를 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위해 행정실을 찾았다. 담당자는 ‘대구소년원’과 ‘읍내정보통신학교’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소년원이라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식개선과 함께 이곳에 수용돼 있는 학생들과 가족들을 배려해 학교라는 명칭도 쓰고 있다. 공식적으로 학교로 불리고 있고, 다양한 교육과 함께 중·고등학교 과정을 밟을 수도 있어 학교나 다름

없기도 하다.

“법원소년부에서 9호에서 10호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이곳에 옵니다. 가장 엄한 벌을 받는 곳이지요. 최고 6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하고요. 한때 실수로 비행을 저질렀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새롭게 교육을 받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는 말 속에서 책임감의 무게가 진하게 느껴졌다.

따뜻한 리더십으로 학생들을 보듬다

인성교육이 읍내정보통신학교 교육과정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이 그릇된 가치관으로 비행을 하게 된 만큼 인성교육을 중요시 한다. 그 밖에도 10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직업훈련교육으로 제과·제빵 교육을 실시하고, 9호 학생들에게는 케이크 디자인과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다. 특성화 교육으로는 컴퓨터 및 검정고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체험학습도 하고, 재능을 나누려는 분들이 와서 콘서트와 강의 등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학부모와 함께 가족사랑캠프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당자는 봉사활동 나가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 “꾸준히 봉사활동을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욕봉사도 매년 나가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몸소 활동하는 가운데 깨우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잘못을 해서 비록



여기에 오긴 했지만 이러한 체험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요. 인성교육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내정보통신학교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학생들의 욕구에 비해 기관의 자원과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 부분을 사회 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이곳에 오는 참여 자분들이 많이 채워주고 있다.

“구정순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이곳에 와주고 계십니다. 30년 교편 경험이 이곳에서 발휘되고 있죠.” 주로 남자 선생님이 많은 읍내정보통신학교에서 구정순씨가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리더십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퇴직교사로서 누구보다 학생들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담당자는 퇴직 후 쉬고 싶은 마음도 많았을 텐데도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러 오는 구정순 선생님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전했다. “학생들에게 열정도 많고 관심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학생들이 남자 선생님한테는 말 못할 고민들을 구정순 선생님께는 하더군요.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져서 그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한걸음 한걸음

구정순씨는 국어교사로 30년을 일했다. 은퇴 후 평생교육원을 다니며 우연히 컴퓨터교육을 하는 분과 친해졌다고 한다. 그계기로 ITQ,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을 취득

했다. 그렇게 3년을 공부하며 자격증을 땀과 보조강사로도 활동했다. 그러던 중 2013년도에 공무원연금공단을 방문했는데 그곳 교육담당자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안내 해주었다.

“읍내정보통신학교에서 검정고시반 교사를 모집하고 있었어요. 마침 제가 컴퓨터 자격증도 있고, IT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해서 특성화교육을 맡게 되었죠.” 그렇게 대구소년원과 인연을 맺었다.

구정순씨는 이곳에서 워드, 엑셀 등 기초과정을 맡고 있다. “우리 학생들의 습득 능력은 대단해요. 어렸을 때부터 PC를 다루서 그런지 어떨 때는 제가 한 수 배우기도 합니다.

남자 선생님보다 제가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몰라서 찢찢매다가 제가 옆을 지나가면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때 물어봐주는 학생들에게 고맙고, 보람을 느낍니다. 저렇게 순진한 학생이 왜 여기에 들어왔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는 오래전 퇴소한 어느 학생을 떠올렸다.

“한 학생이 저에게 글쓰는 것이 좋다며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준비할 것이 많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우려는 욕심도 많았고 진심이 느껴졌지요. 그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성장했나 궁금하네요.” 구정순씨는 길을 가다 알아봐주는 학생들도 무척 고맙다고 한다. 교직생활을 하며 만났던 학생들과 이곳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무엇이 다르겠는

사회공헌활동 Tip



참여기관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는 못하다.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함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사회공헌활동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가. 그들을 똑같이 대하는 구정순씨의 진심이 전해졌다.

“물론 은퇴 후 제 나이 때문인지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실히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준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호기심과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어서 저도 노력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는 일이 끝난 뒤에도 다음 수업을 위해 집에서 늘 수업준비를 한다고 했다.

학생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특성화교육을 위해 매주 두 명의 참여자가 읍내정보통신학교를 찾고 있다. 매달 치러지는 디지털정보활용능력시험(DIAT)을 위해 워드와 파워포인트, 엑셀 등 여러 과목을 나눠 가르친다.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하면 가산점이 붙어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한 학생은 일찍 나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만큼 학생들이 사회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 오는 모든 학생들을 100%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직원과 참여자 모두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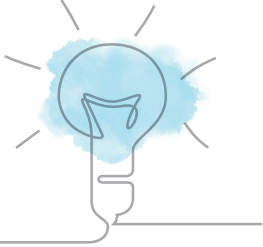
“나가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취업하는 학생 등 다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죠” 퇴소하는 학생들과 계속 연락이 되는지 묻자 기관 담당자는 답했다. “담당 선생님과 가족들께 연락을 합니다. 가끔씩 방문지도를 나가서 학생이 잘 적응하고 있는

지도 확인하고요. 스스로 이곳으로 찾아오는 학생들도 제법 있어요. 그럴때마다 이곳에서 학생들을 돌보던 선생님과 참여자분들 생각이 많이 나요. ‘잘 가르쳐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한마음 한뜻으로 학생들을 응원하다

오랫동안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들과 함께 했던 한 직원도 말을 이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지식정보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잖아요. 현재 교육과정이 이 부분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지요. 이곳에 오는 참여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와 같은 고민이 있는 거죠. 또, 학생들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자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알고 계신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참여자들은 물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자체에도 고마움을 전했다. “사회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공헌활동 자체가 우리 학교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의미여서 감사 하죠.” 참여자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모든 것을 채울 수는 없을 것이다. 기관 담당자와 참여자들의 애정과 관심이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해져 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동력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쉬운 컴퓨터 용어사용으로 학습의 문턱을 낮추다

주요경력 용접사 21년, ITQ정보기술자격증

활동내용 성인 컴퓨터 강좌 개설

참여기관 충주열린학교

지 자체 충청북도 충주시

건강문제로 찾은 충주에서의 새로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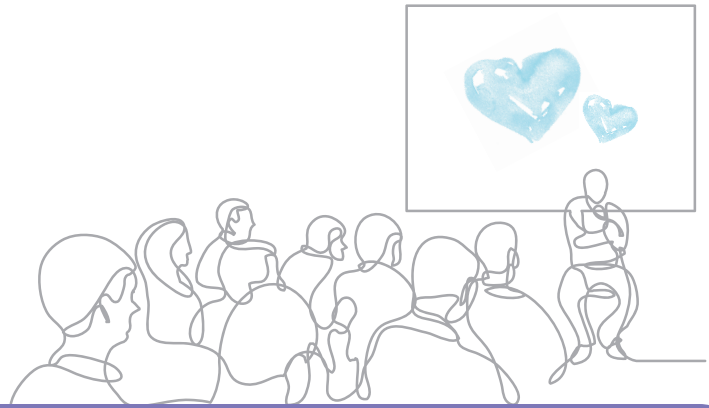
서울 생활 21년이 되던 그해는 겨울바람처럼 매서웠습니다. 중장비 용접을 해오던 저는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야했던 업무특성상 허리디스크가 발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일을 그만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업을 접으면서 서울생활까지 정리하고 삶의 터전을 충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충주는 공기 좋고 인심도 좋았지만 연고라고는 없었습니다.

낯선 충주에 와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교육과정으로 컴퓨터를 배울 수 있게 지원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울 겸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생각과 달리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우다보니 흥미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시험에 합격해 ITQ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사자격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눈높이에 맞춘 컴퓨터 교육이 낳은 효과

합격증을 받아놓았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한 저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부단히 노력해 자격증을 따냈음에도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조금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관점을 바꿔 이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린학교를 알게 되었고 어느덧 6년째 컴퓨터 교실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린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50~70대 고령자입니다.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어도 낯설어 하셨습니다. 컴퓨터 용어들은 외래어가 많고,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분들이 열의가 있고 이해력이 좋은 경우조차 낯선 단어를 외우는데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저는 어느 때부터인가 수업을 하면서 컴퓨터 용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생소한 용어를



익숙한 단어로 바꿔 말하자 수업의 전달력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예 처음부터 바탕화면은 '거실', 폴더를 '책가방'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수업하고 있습니다. 드래그를 '질질 끌어'라고 하면 웃음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단어를 바꾸기만 했을 뿐인데 수업의 집중도가 올라가고 진도나가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저분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가르친 성과가 나타날 때 보람을 느껴

이제는 엑셀도 능숙하게 하셔서 모임의 총무 역할을 맡으시는 어르신을 보면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도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게 수업을 하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수업을 통해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더 나아가, 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사회와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자

남
승
진

[63세]



인생계획을 지킬 수 있게 해준 사회공헌활동

주요경력 대형병원 행정업무 33년

활동내용 사회적기업의 홍보 및 행정지원

참여기관 수원굿월스토어

지 자 체 경기도 수원시

퇴직 후 인생계획을 지킬 기회

퇴직 전, 제가 세운 퇴직 후 인생계획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자', 둘째는 '삶의 윤택함과 같은 악기 연주 등의 취미활동을 통해 삶에 활력을 유지하자', 셋째는 '어려운 사랑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자', 마지막 넷째는 '최소한의 소득을 얻기 위한 경제활동을 지속 하자'였습니다. 이러한 인생계획을 토대로 퇴직 후 하루하루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셋째 봉사활동과 넷째 최소한의 경제활동,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찮게 인터넷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면서 최소한의 소득도 얻을 수 있더니 제가 세워 왔던 퇴직 후 계획에 꼭 알맞은 활동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기에 힘을 낸다

그렇게 지금의 활동기관인 '수원굿월스토어'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원굿월스토어는 대기업, 개인 등 다양한 곳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물품들을 기증받아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자선이 아닌 기회'이라는 구호 아래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33년간 대형병원에서 행정업무를 했던 저의 경험을 살려서 판매물품의 기증을 받고, 기관에 대한 홍보를 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만 하면 저절로 힘이 나곤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주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자신이 쓰지 않지만 아직 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사업체에서 작으나마 저의 힘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저의 퇴직 후 인생계획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김성인

[62세]



오랜 경력이 빛을 발하는 시간

주요경력 KT 통신시설 관리 30년

활동내용 지역아동센터내 컴퓨터 관리 및 행정업무

참여기관 한마음 지역아동센터

지 자 체 경기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극복

저는 30년을 KT에서 통신시설을 운영하고 보전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컴퓨터 시스템 등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자신감마저 없어졌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의구심도 들었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갈팡질팡하던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에 위치해 있는 한마음지역아동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도움이 되는 순간의 보람

시설장님께서서는 은퇴 전 저의 경력을 크게 봐주셨고 경력을 활용하여 컴퓨터 관련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수리해주고 새로 컴퓨터를 구입하면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운영체계에 당황하고 난감하기도 했지만, 이전 업무 경험이 지금의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컴퓨터 관련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곳 지역아동센터에서 컴퓨터를 기증받게 되었는데 컴퓨터를 설치하고 프린터를 연결하고 기존 컴퓨터의 데이터를 옮기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은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면서 맡겨진 일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틈틈이 아이들에게 바둑이나 한자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저는 퇴직 후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이곳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공헌활동으로 다시 찾고 있습니다. 저의 예전 능력을 눈여겨봐주시고 불붙여주신 기관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유어웨이에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능력이 되는 한,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저를 필요로 하는 힘든 곳, 어려운 곳에도 계속 찾아가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참여자

김창배

[75세]

참여자 > 안영애

소중한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보람된 시간

주요경력 학원운영 15년, 직업상담사
활동내용 취업안내 및 행정지원
참여기관 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 자 체 광주광역시 북구

현실의 벽을 체험했던 시간들

짧지 않은 시간을 학원운영관리를 하며 보내 왔습니다. 직장생활에 모든 것을 바치고 얻어 왔던 생활을 해왔던 터라 퇴직 후 허탈한 마음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연히 집단 교류 분석이라는 과정을 수강하면서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취업원서를 냈던 곳으로부터 어떠한 소식을 듣지 못했던 저는 관련 직종의 무경험과 나이 또한 취업에 장애가 되고, 전 직장에서의 직급과 급여가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신중년들이 느낄 허탈한 마음을 공감하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희망, 성취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심리상담교육, 동기면담 등의 교육을 받고 있던 차에 노사발전재단에서 여러 계층

의 구직자들의 구직알선상담과 신중년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중년들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신중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적성에 대한 고민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재취업과 창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맞이한 시작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공헌 참여자로 취업알선을 진행하며 젊은 시절 열정을 다해 일하며 인정받았던 그들이 신중년이 되어 구직을 위해 노력하지만 업체에서는 젊은 청년들을 선호하는 것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구인 사이트에 올라오는 채용정보 중 신중년들의 수요가 필요한 기업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신중년들의 채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내담자들과의 꼼꼼한 대면 상담을 통해 직업을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공공근로를 하면서도 생애경력설계를 위한 강의를 수강하는 그분들의 열의는 그동안 일하며 힘든 상황을 불평하며 지내온 제 자신에게도 많은 깨우침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매일매일 보람 있는 생활을 선물해준 노사발전재단에 감사드리고 신중년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참여자분들의 전문성과 성실함이 모범이 되다



살기 좋은 나라 위한 정책조사 및 연구 수행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은 충청북도 인가 손수 민간정책평가 사단법인으로서 산학연관 협동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 필요한 각종 정책의 조사·연구 개발 수행을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공공부분의 성과관리, 중장기 경영전략수립, 조직진단 및 인사조직 부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취업, 창업지원 활동을 통한 경제활동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다양한 지원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두 분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교육 공무원으로 경력을 가지고 계신 참여자께서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에서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경영분석에 대해서 지도해주시고, 행정 공무원으로서 경력을 가지고 계신 참여자께서는 행정지원으로서 연구용역 문서관리, 자료 분석 등을 맡고 계십니다. 참여자 한현구 씨는 교육서비스 창업팀에서 사업아이템 분석부터 경영진단까지 경험을 살린 실질적인 멘토를 해주셔서 창업팀으로부터 평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양충석 씨께서도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 등 행정서류 작성에 능숙하셔서 사무처리, 자료분석 등 행정적인 분야에 대한 부족한 일손을 거두어 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다 보니 가끔씩 어려운 일도 발생하지만 능숙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주저 없이 일처리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여자분들의 봉사하는 마음과 한결같은 성실한 모습이 기관의 본이 되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참여기관

(사) 퍼스트 경영기술 연구원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8-2

대표자 이봉수

활동내용 경영지도 및 행정지원

참여자 2명

지자체 충청북도 청주시

든든한 참여자분들의 도움으로

정부 및 지자체 각종 조사, 연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업무에 대한 인력운영상 한계를 느끼던 차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기관의 홍보를 접하게 되어 행정업무를 담당할 참여자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요청 가능분야를 살펴보면서 경영전략,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였고 기존 경력을 활용하여 활동이 가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1-11

대표자 이상준

활동내용 도서관 운영 및 행정지원

참여자 1명

지자체 전라북도

인력 부족한 상황에 등장한 구원투수

덕진품애 작은도서관은 2013년 12월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개원하였으며, 정보화시대에 맞게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과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아·아동·청소년 도서부터 일 반도서(6,000권) 및 DVD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독서 동아리, 영어스토리텔링을 포함한 1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근무자 1명이 운영하고 있어 이를 지원해줄 경력자 영입이 절실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추가 채용은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빌려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분들은 기존 담당자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 직접 대출반납 및 전산처리 같은 도서관 운영 전반을 도맡아하셨고, 프로그램별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별 예산 지출 건에 대

해 담당자와 상의하여 구매·지출관리와 엑셀을 활용한 간단한 회계 업무에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프로그램 참여자를 관리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답고 열정적인 도서관의 새로운 식구

수십 년의 대학 행정실 근무를 바탕으로 탁월한 세세함과 철두철미한 준비성을 보여주신 장준희 선생님과 소개시켜주신 운영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오시자마자 본인 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나며 일부터 챙기신 선생님의 열정과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으로 뼈뼋게 놓인 의자 하나 그냥 넘어 가지 않는 모습은 인생 후배로서 존경할 수 밖에 없는 선배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항상 웃는 얼굴로 도서관 이용객들을 맞이해주셔서 프로그램 이용자 및 이용객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도서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식구가 되셨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런 귀한 분과 함께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기관

덕진
품애
작은
도서관



다양한 활동 위한 날개를 얻다

충남 보령시 대흥로 77번지 2층

대표자 신현승

활동내용 외국어 통번역 및 교육지원

참여자 3명

지자체 충청남도

다문화인들의 입이 되어준 사회공헌활동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보령시지회는 충청남도 보령에 거주하는 다양한 나라의 이주 여성들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 참여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보내준 기관 소개 및 사업 설명 홍보물을 우연히 보고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협회 자체가 다문화인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보니 일을 진행함에 있어 행정적인 부분에 어려웠던 점이 많았습니다. 협회 회장인 저 또한 중국 길림성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입니다. 행정을 처리하면서 접하는 낯선 단어들과 복잡한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간단한 일도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지원을 받으니 훨씬 수월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업무의 능률이 개선되었습니다. 여력이 없어 업무를 내지 못했던 프로그램까지 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지역단체에 큰 힘이 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니 참여자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협회가 큰 단체가 아니다 보니 기존에는 협회로 지원되는 예산도 적고 수행 인력도 적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만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세 분은 함께 논의하고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소속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임해주셨습니다. 언제나 본인의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업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기관

충남
다문화
가정협회
보령시지회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가꾸는 텃밭이 되다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92

대표자 이천식

활동내용 프로그램 개발지원

참여자 4명

지자체 강원도

다양한 사람들의 재능으로 풍성해지는 삶. 춘천도시농업센터는 환경 운동과 텃밭생태 교육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기업 행정 지원, 초중고생 특별교육, 진로체험교육, 생태체험교육, 식생활교육 지원, 자원봉사자 지도 등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인 퇴직 공직자와 교사들의 경험과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준 운영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자상한 누이 같고 아버지 같은 활동가분들. 행정지원과 교육을 담당한 김두식 선생님은 2년째 함께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교육 문제에 선생님의 역량을 매진하기로 결심하신 후 새로운 활동에 적응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조경호 선생님은 퇴직하자마자 찾아와 무슨 일이든 마다 않고 하겠다며 참여하셨는데 정말로 능동적으로 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특

히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는 밤낮 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김시역 선생님은 도시농업에 열심이십니다. 새로운 씨앗과 재배법을 배워서 시험해보시고, 틈만 나면 농장을 찾아 작물들을 가꾸셨습니다.

식생활교육 매니저인 이성희 선생님은 공동매장 운영과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온갖 공을 쏟으셨습니다. 어린이와 노인들의 먹거리 문제를 연구하고 식생활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고 정다우신 선생님들이 저희들 곁에 계셔서 센터 내 직원들의 행복은 더욱 커졌습니다.

웃음이 함께하는 춘천도시농업센터

우리 춘천도시농업센터의 일상은 사회공헌 활동 참여 선생님들의 웃음과 함께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행복을 찾아 더욱 확산될 것이라 믿습니다. 퇴직 공직자와 교사, 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행복하고 이웃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힘이 되고자 합니다.

참여기관

춘천
도시
농업
센터

참여기관

(사) 전북 여성단체 협의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
사회공헌활동을 알게돼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는 1975년 창립 이후 지역의 여성지도자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양성평등주간기념사업, 전북한마음 합창경연대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여성인재 양성 및 관련단체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사 관리와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1명의 담당자(사무국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원사의 회비만으로는 협회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건만 되신다면 다음에도
꼭 저희와 함께 해 주십사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일하게 된 신기순 선생님은 전북한마음합창경연대회 참석자(800명) 및 합창경연대회 참가자의 유선연락 및 신청 접수를 지원하였

으며, 서류 및 행정업무를 도와주셨습니다. 전북여성대회(제15회)의 경우 토론회 자료 취합 및 제본, 참석자 관리(유선연락)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였고, 여성NGO활동성과보고 및 토론회에서는 체험 및 홍보부스 신청서 접수 및 현황자료 작성, 보고를 통해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은 회원사 관리 및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많은 분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사 담당자 및 행사 참석자들과 상담, 통화를 하시며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친절히 대하여 일을 처리해주신 신기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저희 기관의 사명감(여성 권익 신장)에 공감하며 훌륭한 일을 하는 기관에서 일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 또한 너무 뿌듯했습니다. 선생님과 앞으로도 함께 활동하길 바랍니다.

손하나가 더해져 큰 일을 해냅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18
대표자 신종화
활동내용 행사운영 및 행정지원
참여자 1명
지자체 전라북도



PART 3

내 삶과
사회의 행복지수를
높이다

십시일반 (十匙一飯)이라는 사자성어는 여러 사람이 한 숟가락씩 밥을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식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행복감은 한 숟가락 밥을 남에게 보탬다는데서 나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이 나누는 노동, 지혜, 마음은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도 높여주었습니다.

Happy



상담·재무

Interview

참여자

심종협 | 장기명

참여기관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Case

참여자

백경옥 | 유명숙 | 박용남

이연영 | 홍순철

참여기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울산여성의전화 부설 울산노인상담소

(사)여성과나눔 보육콜센터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이야말로 사회공헌 활동의 전부



목회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 그분들의 사연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으며 체득한
지혜로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응어리진 마음과 함께하고 계시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심중협(참여자 / 73세)

주요경력 목회자 34년

활동내용 자살예방활동 및 갈등상담

참여기관 충주생명의전화

지 자 체 충청북도 충주시



또하나의 사명 사회공헌활동

충주생명의전화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심종협씨를 만나러 간 날은 장마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혹여나 늦을까봐 약속시간보다 일찍 센터에 도착했지만 이미 심종협씨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와서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에 평상시에 얼마나 준비성이 철저한 분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34년간 목회자 활동을 했다는 심종협씨. 그는 현재 사회공헌활동으로 하고 있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자신이 사명으로 한 목회 활동 덕분이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인터뷰 내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 마음이 상담소에 문을 두드린 내담자에게도 전해진 것일까. 심종협씨의 상담케이스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은 저마다 사연을 그에게 풀어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리라.

목회자로서 느낀 삶의 보람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신앙이 깊었던 심종협씨 어머니는 어린 아이를 업고 교회에 나갔다고 한다. 그때부터 심종협씨는 철저하게 신앙의 힘으로 어린시절, 학창시절, 청장년시절을 보냈다. 남들은 앞으로 뭘 할지 몰라 방황하며 진로를 결정할 때도 그는 걱정이 없었다. 일찍부터 목회자로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군복무 때도 군중으로 병사들의 신앙생활을 도왔다고 한다.

제대 후 결혼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제대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기독교 음악전공을 했다. 합창 지휘를 오랫동안 하다 목사가 되기 위해 목회학을 공부했다. 그때부터 상담학도 공부했다. 처음으로 목사가 된 때는 1982년이였다. 목회자라는 직업을 가진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심종협씨는 “목사는 직업이긴 하지만 사명이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평생을 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목사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도 들려줬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이 있었어요. 부모가 화목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항상 신앙생활을 강조했고, 결국 자녀도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믿음에 답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눌 것 인가에 대한 해답

오랜 시간을 목회자로 활동했던 심중협씨에게도 은퇴의 시간이 찾아왔다. 2016년 3월이었다. 무엇을 해야할지, 적성에 맞는 것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근처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청소년상담사양성과정을 공부했지만 이내 내 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후로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가 생활이었기에 어느 정도 글쓰기에 자신이 있었다. 그렇게 시와 수필을 쓰기 시작했고 문단에 등단도 했다. 하지만 오래 앉아 있기는 힘들었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때 충주생명의전화에서 근무하고 있던 동료 목사를 통해 이곳을 알게 되었다. 평생 목회자로서 남을 도와주었던 삶을 여기에서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생명의 전화를 받기 위해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심중협씨는 말했다. 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오랜 시간 공부해야했고, 상담사를 취득하고 난 후에도 오랜 기간 인턴기간을

거쳤다. 과거 목회를 하면서 상담도 많이 하고 목사가 되기까지 상담학도 공부했지만 이곳에서 요구하는 상담스킬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언제 어떻게 걸려올지 모르는, 어찌 보면 상담자가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문으로 생각하는 곳인데 어찌 '생명의 전화' 한통을 가볍게 받을 수 있랴. 기본적으로 상담은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하는 도중에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나갈 것인지를 상담을 통해 함께 찾는 것이다. 자식과의 관계,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경제적 고민, 사회 부적응과 관련된 고민 등 상담 전화 내용은 굉장히 다양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생명의전화'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겐 오지 말았으면 하는 전화가 있다. 바로 죽음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가는 전화다. 개인의 가슴 아픈 사연을 이 지면에 소개할 수는 없지만 사소한 문제의 골이 깊어지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살을 생각하고 전화를 한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때 저도 당황하지만 최대한 동감하려고 노력합니다.

절대 지시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가족들은 생각해보셨나요?’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기쁨이나 노력이 아깝지는 않으세요?’라고 묻습니다. 최대한 동감하는 것이죠. 얼마나 속상한지 위로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위로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가 힘을 얻고는 합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다. 목회자로서 충실하게 살아온 심종협씨가 자살을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애절하게 들으려고 노력했을까 짐작됐다. “당신의 생명은 귀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었던 당신의 말이 이 세상은 기억하고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어요.” 조심스레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는 심종협씨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사회공헌활동 Tip

상담 서비스를 받는 분들과 신뢰 관계를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이 아닌, 사회공헌활동은 아르바이트로 오해 받기 쉽고 상담을 깊이있게 해주지 않을거라는 편견을 갖기도 하니까요.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었으면

심종협씨로부터 “충주생명의전화와 같은 기관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만큼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으리라.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년 넘게 일하고 있기에 충주생명의 전화에 대한 안타까



움도 크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상담사들이 많이 배출되기는 하지만 능력 있고 역량있는 상담사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는 상담사분들도 거의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필히 야간근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충주생명의전화에서는 상담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다.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을 모른 채 갈등을 겪어지고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에 2~3회 충주생명의전화를 홍보하기 위해 걷기 캠페인도 하고 있다.

한사람이 자살을 하면 그 여파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직접적으로는 6~7명에게, 많게는 60~70명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고 보고 있다. 심종협씨 역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자살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다고 한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원만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기관의 노력들을 알기에 자살예방 관련 기관들을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생명의 전화



호주의 알렌워커 목사가 전화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자는 운동으로 시작, 국제적인 생명활동으로 확산됨. 한국에는 1976년 한국기독교회관을 첫 시작으로 전국 18개 도시 19개 센터의 5,600명의 자원봉사자가 24시간 생명의 전화를 받고 있다. (전국공통 1588-9191)



축복으로 가득 찬 은퇴 이후의 삶

심종협씨는 은퇴 후 생활이 더 바쁘다. 은퇴 전에는 묶여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 봉사활동 등에 매진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어디에도 간섭받을 일이 없으니 마음껏 할 수 있다. 대신 더 넓은 의미의 봉사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는 있다.

물론 그 어려움이 그의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 그는 생명의전화에서 상담하는 것 외에 활동의 연장선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자살예방교육을 나가더라도 인성교육과 병행하려고 합니다. 삶의 의미와 나의 사명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면 자살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되거든요.” 그는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종협씨는 그 밖에도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도 년 2~3회 강연을 하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아내도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구요.” 아내는 문인화를 하면서, 그는 글도 쓰고 봉사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서로 든든한 지지자가 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공헌활동은 믿음과 마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는 심종협씨에게 혹시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는지 물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싸움과 전쟁과 질병이 있어 그 평화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 봉헌이고 사랑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종협씨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매일 두 손을 모은다. “평소 삶의 철학이 ‘모든 사람이 가족이다’입니다. 모든 범 죄는 남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화상담을 요청했던 한 분이 ‘저를 도와준 것은 당신의 마음이었어요’라고 했다면서 “사회공헌을 하는 참여자 또한 이러한 마음을 전하고 전달받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3번째 28년

장기명씨(63)는 친구들 사이에서 롤모델로 꼽힌다. 자신의 경력을 살려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곳저곳에 강연을 다닌다. 1년에 한 번씩 꼭 여행을 다녀와 기행기를 '브런치'에 올린다. 기행기 외에도 각종 에세이와 조선왕조 왕릉기행소설 등이 올라오는 장기명씨의 브런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공감을 표한다. 손으로는 글을 쓰고, 발로는 뛰어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시니어라면 누구에게든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하다. 범상치 않은 외모가 그런 삶을 대변하듯 자신감에 차있는 장기명씨를 만났다.

너무 빨리 이룬 은퇴 후의 꿈

장기명씨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성격이 급하고 자유로운 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28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셨어요?”라고 질문을 던지자 그는 “참고 다닌 거죠, 뭐. 틀에 박힌

생활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제 나이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사표를 넣고 다니지만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기며 참고 또 참는 거죠.” 지금 세계 각지로 여행을 다니고, 기타 연습을 계속 하는 것도 그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꿈이었다.

장기명씨는 대학 새내기 시절, 친구와 밴드 듀오 '맷돌'을 결성해서 각종 대학 축제와 군부대 행사를 섭렵한 실력 있는 기타리스트였다. 하지만 완고한 성격의 아버지의 반대로 결국 그의 기타는 입대 전에 모두 아버지의 손에 박살이 났다. 30년 동안 기타를 다시 잡는 일은 꿈의 영역에만 머물렀던 셈이다. “그래서 퇴직 1년 전에 낙원상가에 가서 기타, 앰프, 마이크를 다 샀어요. 그때를 회상하면 그렇게 가슴 벅찬 일이 살면서 몇 번이나 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장기명씨는 은퇴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갔다. 은퇴할 때가 다가온 입학 동기들은 대부분 미소금융에서 다시 은퇴 후의 삶을 찾았다. 하지만 장기명씨는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었다. 은퇴를 앞두고 평소 가슴에 품었던 버킷 리스트를 빼보며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했다. 은퇴 후 1년 동안은 소설 집필에 열중했다. 은퇴 6개월 전, 직원들과 함께 간 워크샵에서 우연한 기회에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단종의 무덤 장릉을 찾았다. 보통 서울 근교에 있는 왕릉들과 달리 홀로 영월에 있는 게 신기했던 장기명씨는 그 후 조선 왕릉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파고들수록 흥미로운 왕릉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그는 왕릉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는

장기명(참여자 / 63세)

주요경력 기업은행 28년 근무(지점장)

활동내용 자영업자 경영 멘토링,
재무상담 및 교육

참여기관 (사)신나는 조합

지 자 체 경기도

JOYFUL CO-WORKING CENTER

경제적 약자들에게 소규모 사업자금을

무담보로 지급하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있다.

한국의 그라민은행이라고 불리우는

신나는조합에서 오랜 은행경험을

바탕으로 대출이 힘든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심사와 경영분석을, 은퇴자를 위해서

재테크 상담을 해주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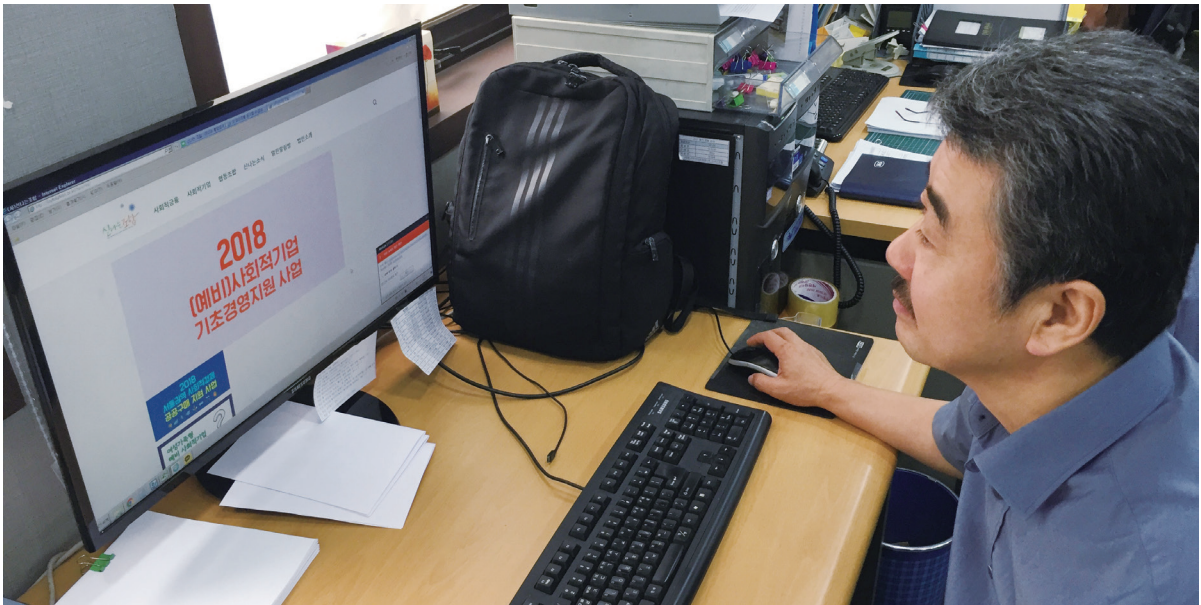
장기명 씨를 만나본다.



꿈을 품게 되었다.

왕릉 별로 얽힌 사연을 찾아서 전국의 왕릉을 3개월 넘게 직접 답사한 경험을 담아내 42편의 단편 소설로 묶어 '조선 왕과의 만남'이라는 기행 소설을 완성했다. 브런치에 올린 왕릉 기행문은 그에게 글 쓰는 즐거움을 알려준 고마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은퇴할 때 품었던 꿈을 이루고 나니 허탈했다. 한갑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난 사회에서 아직도 한참 남은 살아갈 날들이 보였던 것이다. 그때 많은 고민을 했다. 하고 싶어 시작했던 것들이 그리 오래 자신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남은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다양한 곳에서 취업 제안이 들어왔다. 응할 법도 한데 장기명씨는 모두 거절했다. “은행에서 28년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했는데, 또 직장에 들어가면 나는 없고 일에 치이기만 할 것 아니에요. 남은 인생을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장기명씨는 그러면서 자신의 수업을 가리켰다.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수업 기르는 거예요. 은행에서 일하면 절대 수업을 못 기르잖아요. 지금도 동기들 중에서 수업 기른 사람은 저 혼자예요.”

장기명씨는 수업이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자기 암시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경력을 활용해 다른 사람을 도울 일이 없을까





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기회가 찾아왔다.

우연히 찾아온 맞춤옷과 같은 활동

그런 장기명씨에게 딱 맞는 일이 있었다. 함께 은행에서 일했던 동료가 '희망도레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근황을 이야기 해줬다. 친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듣던 장기명씨는 '이렇게 딱 맞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싶었다. 1주에 3일만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나머지는 쉴 수 있는 일이라니! 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자율적으로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더 할 수 있다니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장기명씨가 시작한 활동은 '마이크로크레딧(Micro Credit, MC)' 사업이다. 경제적 약자들에게 소규모 사업 자금을 무담보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가 운영하는 '그라민 은행'으로 유명한 대출 형태다. 한국에서는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장기명씨가 활동하고 있는 신나는조합에서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등에게 5년간 연 1.8%의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장기명씨는 기업은행에서 28년 동안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을 직접 방문해 실사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직접 심사를 나가서 만난 대상자들은 은행 재직 시절이라면 대출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한 분들이었다. 아무리 의지가 높고 참신한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더라도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서 은행에서는 대출 신청을 해도 난색을 표하며 거부하기 일쑤인 이들이 대다수였다. 자신의 손으로 그런 이들에게 다시 일어나 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장기명씨는 한 명 한 명 대상자들을 만날 때마다 뿌듯하다고 말했다.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은행에서 대출 심사 때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전공 덕분에 들어갔죠.

제가 지점장 근무를 마지막으로 수원에서 했거든요. 거긴 삼성전자와 관련돼 새롭게 떠오르던 LED 제작설비를 갖춘다던가 하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곳들이 많았어요. 제가 전공을 살려서 많이 지원했죠. 지금은 그 업체들이 한국경제를 이끄는 중견기업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그때처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계속 일한다는 생각에 기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들이 되고 싶어

이야기를 이어가던 장기명씨가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시력을 다 잃기 전에, 제 형체를 알아 볼 수 있을 때 꼭 사진을 찍고 싶었다고 합니다.” 장기명씨와 함께 사진을 찍은 사람은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받아 안마

원을 차린 A씨였다.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약화되기 시작해 언젠가는 실명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자신의 미래보다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만 같은 걱정에 퇴사를 결정하고 안마 기술을 배웠다.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된 남편을 걱정하던 아내는 유방암 진단까지 받았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장기명씨는 꼭 A씨의 자활을 성공적으로 돕고 말겠다는 다짐을 굳게 다졌다. 그의 열성적인 조언과 A씨의 강한 의지가 합쳐져 이제 차린 지 4년 된 안마원은 무사히 순항하고 있다. A씨의 시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지만, 걱정을 조금은 덜게 된 아내의 유방암은 다행히 완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어렵지만 힘을 내서 살아가는 대상자들을 만날 때마다 장기명씨의 가슴에는 뿌듯함이 가득 찬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은행과 국가에서 30년 동안 저를 성장시켜 준만큼 또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와서 사회에 보답한다는 생각에 늘 행복합니다.”

똥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이야기로

장기명씨와 대상자들의 인연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자금을 지원받은 이들을 매달 찾아가 멘토링을 해준다. 그의 멘토링은 좋은 말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출이 실행 되면 저는 그 순간부터 당신 편입니다.” 장기명씨가 대상자에게 꼭 명심하도록 하는 말이다. 마음을 담은 조언을 해도 받아들이 준비 없이, 의심을 하면 조언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절박한 상황인 대상자에게 때로





는 폐업도 조연한다고 덧붙였다. “장사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데도, 언젠가 나아지겠지 하는 헛된 희망을 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남아있는 돈이라도 건져 다른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버티며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조언한다. “그래야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신용사회에서 우선은 대출을 상환해야 다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생깁니다.” 장기명씨가 은퇴 예정자 교육 강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줘요. 가장 먼저 하는 조언이 엑셀로 자신의 재정상황을 파악해보라는 겁니다. 한 달에 생활비로 얼마가 나가고 있고, 은퇴 후에 한 달에 얼마씩 수입이 들어올 예정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획을 짜겠어요.”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튼구름 잡기에 가까운 ‘총론’을 이야기하는 다른 강사들과 달리 피부에 와 닿는 ‘각론’을 이야기하는 셈이라고 장기명씨는 자신의 인기비결을 분석했다.

누군가의 롤모델

친구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훌륭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장기명씨에게 본인의 롤모델은 누구인지 물었다. “저는 이 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두 다리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계속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같이 활동하는 분 중에 45년생인

75세의 나이로도 왕성히 활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처럼 정년 없이 정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장기명씨는 동년배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말도 덧붙였다. “제가 사는 이야기를 하면 사회공헌활동에 관심 보이는 친구들도 많아요. 하지만 자세하게 들어가면 다들 ‘어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하면서 다시 손을 내젓죠.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다면 아마도 이 활동을 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요. 망설이는 친구들도 조금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공헌활동 Tip

‘본인이 가진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아마도 본인이 사회에서 받았던 지위나 보수 등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내려놓으면 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장기명 씨는 이야기 한다.



밥, 노동, 희망

사회를 빛내는 보석같은 사회공헌 이야기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참여기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번길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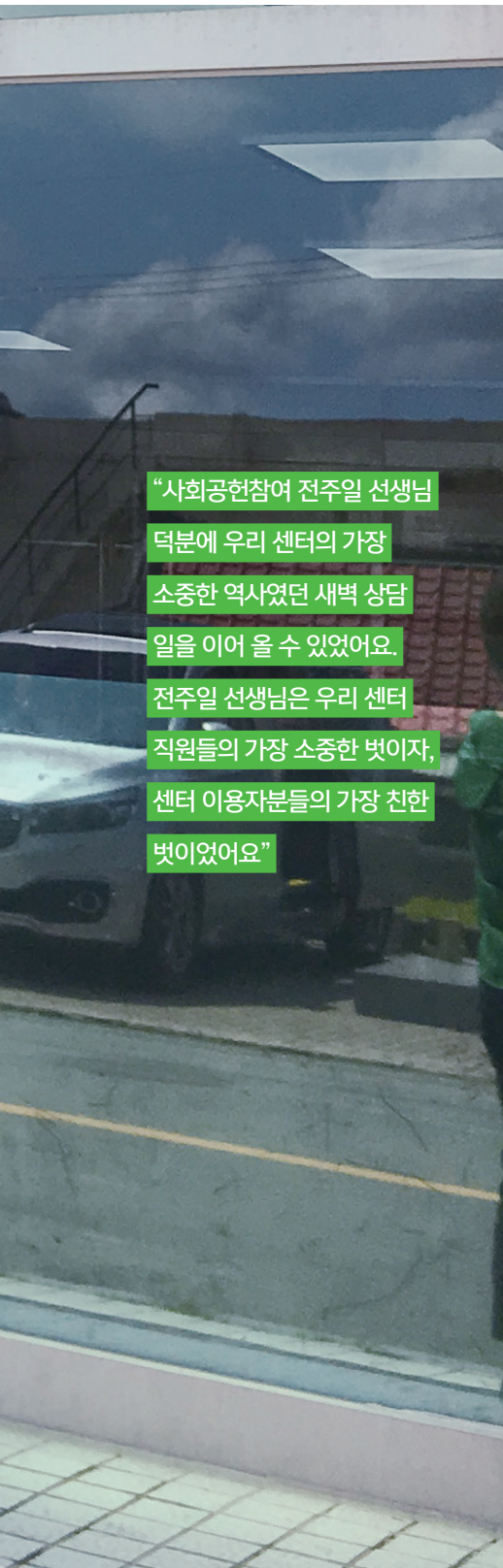
대표자 김두호

활동내용 취업상담 및 지원, 무료급식

참여자 1명

지자체 충청북도 청주시





“사회공헌참여 전주일 선생님 덕분에 우리 센터의 가장 소중한 역사였던 새벽 상담 일을 이어 올 수 있었어요. 전주일 선생님은 우리 센터 직원들의 가장 소중한 벗이자, 센터 이용자분들의 가장 친한 벗이었어요”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다양한 기관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기관이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였다. 사회공헌활동을 이른 새벽인 4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9시까지 한다는 것부터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 받고 일하는 직업도 아닌데,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참여자는 어떤 분일까 하는 궁금함이 청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국가적 아픔을 품고 시작된 사회공헌활동의 역사

“우리는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겸손함을 먼저 내비친 이경순씨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부센터장이다. 새벽 4시부터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 활동을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었더니, 이경순씨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나갔다.

“우리가 진행해 온 사회공헌활동을 알기 위해서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역사부터 알아야 해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구,청주시인력관리센터)는 1998년 국가금융위기인 IMF와 청주지역의 극심한 건설업 침체기에 청주시가 시민단체인 청주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민간위탁방식으로 개관한 기관이에요. 청주지역 안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용직, 상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 1월 1일 공식 개관한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구)청주시인력관리센터는 취업알선·정보제공 등을 주업무로 하는 한편, 새벽무료 급식, 미용서비스, 내과·한방 무료진료, 무료법률상담 등 근로복지사업과 건설일용노동자 산업안전교육, 동절기 능력개발훈련, 구인구직만남의 날, 노동부 자활사업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 충북채용박람회, 청소년아르바이트센터 운영, 전문인력양성과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성과를 이어 청주시인력관리센터의 상용직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1년 기관명을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였고, 수탁운영 단체도 청주경실련에서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무료취업상담 및 알선, 일자리정보제공, 기업맞춤형 인재 채용오디션데

이,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찾아가는 일자리 컨설팅, 청주채용박람회, 직업심리검사 및 상담, 함께하는 동행면접 등 다양한 구인구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생활균형촉진장려금 사업 등 기업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기업별 맞춤형 인재매칭으로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와 고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고용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던, 토대가 된 활동이 있어요. 바로 IMF 이후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와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1월부터 센터에서 했던 새벽무료급식(06:00~07:00)이었어요. IMF 이후 일용직 노동을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지요. ‘다들 식사는 하고 일하러 나오셨을까? 이분들 가정은 무사할까?’ 그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자고 시작했던 일이 벌써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네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역사를 들으니, “우리는 사회공헌 우수활동 사례로는 부족해요”라고 했던 이경순 부센터장의 첫마디 말이 무색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활동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새벽에 일용직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사회공헌활동은 이렇게 ‘국가부도 사태’로 불렸던 IMF 경제위기로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주민을 보듬는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친해지니까, 속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을 상담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되, 그들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격려하는 친구가 되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당시 새벽에 이곳을 찾아오는 분들 대부분이 남성분들이어서 이 일을 센터장님이 홀로 오랫동안 해 오셨어요.”

이경순 부센터장이 옆자리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김두호 센터장을 가리키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그러면서 “센터장님이야말로 이 곳의 산역사”라고 덧붙였다. 친구처럼, 때론 형처럼, 때론 동생처럼 그들의 일을 찾아주고, 함께 밥을 나눠먹고, 고민을 들어주니 어느덧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까지 발전하더라는 얘기였다. 센터에선 처음 내방하는 상담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구직상담을 하고 구직표를 작성해서 전문 직업상담사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도록 연계하는 일부터 상담자의 생활 상태나 개인적 특성까지 파악하여 상담을 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새벽에 주는 식사도 일용직 노동자들이 공짜밥을 얻어먹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500원을 받고 제공했다.

“이렇게 하니까 자주 찾아오는 분들과 속마음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구)청주시인력관리센터는 20년간 상담자들의 좋은 벗으로 존재해 온 것이다.

**새벽 상담과 급식
운영 업무를 맡아온
전주일 참여자**

수년을 새벽 5시에 나와서 급식과 상담을 한다는 건 당연히 쉽지 않다. 이 일을 계속해온 김두호 센터장이 지칠무렵,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나타났다. 2005년 6월 청주시행정공무원으로 퇴직한 전주일씨다. 그는 2006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5년간 청주시인력관리센터 컴퓨터소장으로 새벽급식과 일용근로자 상담 및 일일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랬던 그가 다시 이 업무를 맡겠다고 나선 것이다. 새벽 시간대 상담은 일용직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사회 취약계층(실직자, 저소득자, 노숙자, 출소자 등)이 많아서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춘 상담과 관리가 가능한 인력이 필요했다. 마침 전주일씨는 센터에서 컴퓨터소장으로 5년 가까이 일한 경력이 있어 이 업무에 가장 적합했다.



사회공헌활동 Tip

상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과 경청이에요. 상대방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격려하고 친한 친구가 되어야 속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센터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고 과거에 함께했던 동료로서 안타까운 마음반, 책임감 반으로 앞장선 터다.

사회공헌 참여자인 전주일씨는 1948년 생으로 올해 71세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새벽에 진행되는 상담사회공헌활동을 2015년 7월 1일~2015년 11월 30일, 2016년 5월 1일~2016년 8월 30일, 2017년 5월 1일~2017년 9월 30일까지 3회에 걸쳐 진행했다. “전주일 선생님과 센터장님 덕분에 우리 센터의 가장 소중한 역사였던 새벽 상담일을 이어올 수 있었어요. 전주일 선생님은 우리 센터 직원들의 소중한 벗이자, 센터 이용자들의 가장 친한 벗이었죠.”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경순 부센터장은 전주일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전주일씨는 일용근로자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어렵고 힘든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조언했다. 공식생활 경력을 활용해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면 행정 절차를 안내해 일용근로자들의 생활에 안정과 희망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또한 따뜻한 마음과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으로 항상 센터의 분위기를 밝고 훈훈하게 만들어 웃음과 정이 넘치는 센터로 이끄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한다.

전주일씨는 새벽 5시에 센터로 나와서 일용근로자들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고, 센터 내 쉼터, 사무실 등 공간도 잘 관리해 후배인 센터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새벽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센터장은 업무 부담감이 줄어 일상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센터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직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면 행정경력과 경험을 살려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센터를 이용하는 일용근로자들이 전주일씨를 많이 의지하고 따르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이 되었던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사회공헌활동, 우리 안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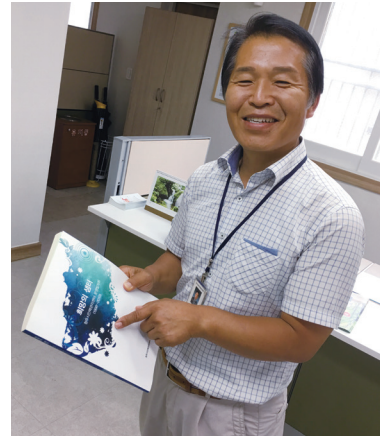
20년 가까이 새벽 급식활동과 상담을 진행해 오며 지역사회 일용직 노동자들의 벗이 되어 온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주일씨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새벽상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쉼터 소장으로 5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로 3회, 오랜 시간 이어왔지만 새벽에 출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엔 71세라는 나이가 주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주일씨가 펼친 사회공헌활동이 사회에 남긴 의미는 작지 않다. 국가적 어려움으로 삶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노동자,

동료시민들에게 밥과 마음,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그들의 삶에 한줄기 희망이 되어 주었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나가는데 공익적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한 이경순 부센터장도 센터장과 함께 이곳에서 17년간 일했다고 했다. 본인은 한 게 없다고 했지만, 묵묵히 센터장과 씬터 소장의 동료로 자기 자리를 지켜 온 것이다.

**개인의 희생아닌,
든든한 사회제도로
사회공헌활동이
장려되길**

이경순 부센터장은 다시 김두호 센터장이 새벽 급식과 상담을 맡게 된 걸 안타까워했다. 보람되고 소중한 일이지만, 개인이 오랫동안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라며 동료로서 센터장을 걱정했다. 이경순 부센터장은 “사회공헌활동 제도가 좀 더 발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좋은 분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인터뷰 내내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업무를 보던 김두호 센터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희망의 샘터’라고 적힌 책 한권을 건네주었다. “센터의 역사가 담긴 책”이라면서, 김두호 센터장은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다할 뿐”이라며 끝까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인터뷰를 끝내고 밝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센터 직원들이야말로 희망의 샘터이자, 희망의 근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노동자의 벚으로, 구직자의 희망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귀 기울이다

무지개를 쫓기보다 지금을 산다는 것

마지막 직장에서 8년간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은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바쁘게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지만 허무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매력을 느끼며 경력을 쌓아왔던 일의 연속선상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원봉사를 함께 하는 분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번뿐인 인생은 연습이 없으며 바로 실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지개를 쫓는 삶을 살지 말고 바로 실전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언제나 먼 미래를 생각하며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참으며 보내기 일쑤입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생각하게 되었고 자원봉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사회공헌을 하는 또 다른 나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봉사로 알게 된 사회문제의 심각성

직업상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평소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평소 광주YWCA의 활동을 눈여겨보고 있던 어느 날 법률상담소에서 상담봉사 활동으로 가족상담과 이혼상담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촉발된 가정파탄으로 인하여 피해여성이 발생하고 자녀양육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가정성폭력, 알코올중독,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등이 사실은 가정파탄으로 인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인남녀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데 부부갈등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남겨진 아이들은 상처를 입게 되고, 이러한



백경옥(참여자 / (67세))

주요경력 가정폭력상담원 8년

활동내용 상담활동 및 프로그램 진행

참여기관 광주YWCA 한빛타운

지 자 체 광주광역시 남구

상처들이 치유되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들이 자란 후 비행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았을 때 사회의 일원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정폭력예방캠페인의 중요성

상담활동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예방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의 기준이 무엇일까,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까.'를 평상시에 생각해본다면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지체 없이 관련 기관과 상담하고 '개별상담 혹은 집단상담' 또는 교육을 통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픔을 함께 하다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주로 심리정서상담과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 프로그램 중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유아 및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반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아이들 모두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반아동(피해아동)들은 부모로부터의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와 정신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아이들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단지 어른들의 갈등으로 인해 생겨난 아이들의 상처는 부모들의 사랑 없이는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며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곳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행복하면 온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반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고 마음의 상처가 하나씩 치유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 가슴이 아프지만 또한 보람을 느낍니다. 저의 활동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힘을 주고 힘든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면서 내 하루를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공헌활동 Tip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끊임없이 묻고 답해보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인지 발견하게 된다. 그러한 일이 사회공헌활동과 연결되었을 때 행복은 배가 된다.



장애인들의 날개를 함께 펴다



유명숙(참여자 / (56세))

주요경력 가족교류분석 상담자격

활동내용 장애인 멘토 및 상담

참여기관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지 자 체 경기도 양평군

사회봉사로 보낸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다

결혼 후 32년 동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로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편에는 아련히 남아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 마다 남을 위해 봉사활동을 했던 결혼 전의 생활이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주변에 사회봉사를 다니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결혼 전 대한적십자사 청주지부 섯별 봉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설 아동들과 함께 운동회와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보냈던 즐거운 추억들과 무의존 무료 진료를 하고 회원들과 보냈던 보람찬 하루가 생각이 났습니다. '600시간의 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하며 더 열심히 하자며 다짐하던 그리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그리워질 때면 집에 돌아와 언젠가 다시 기회가 된다면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다짐 하고는 했습니다.

다시 사회봉사의 삶으로

양평군 평생학습센터에서 개설한 구연동화 아동 성교육지도자과정에 망설임 없이 신청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함께 연수를 이수한 분들과 양평군 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구연동화를 통한 성교육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신기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다물 맘'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청소년 계절학교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동해병기 캠페인, 우리 고장 역사 알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과 접하고 마음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기 위해 준비하다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중 개설된 인성심리상담사 코칭 지도사 과정은 가문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활용 목적이 명확하였기에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여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었던 것일까요?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다물 맘' 회원들의 기획안이 채택되어 복지관에 '꿈 볶는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꿈 볶는 카페'는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인 '꿈나무반' 아이들이 바리스타 실습을 하며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과 함께 장애인 고용의 장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1년 동안 멘토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복지관에서 교류분석 가족상담사 자

격증반을 개설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동, 청소년 및 학부모, 장애인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나에게 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고, 특히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장애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감사해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다

어느 날 카페에 자폐가 심한 장애인이 고용되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폐가 있는 아이와는 많은 대화를 해보았지만 자폐를 가진 성인은 처음이라 낯설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기우였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편견과 우매함에 저절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지만 대화도중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지식과 관심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 중에 약간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처음 느끼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혐오감을 준다느니 부동산가격이 떨어진다' 등의 이유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의 이기주의와 편견으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보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함께 그리는 행복한 삶

함께 봉사하는 선생님들과 복지관 담당 선생님의 권유로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로 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활동하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실습하러 오는 모든 장애인들이 꿈을 이루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회공헌활동 Tip

사회공헌활동을 하다보면 애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참여자의 선입관과 편견이 작용했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이다.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는 누구보다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한다. 세상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봉사하는 삶은 노년의 축복



은퇴 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공무원 33년 생활을 정년퇴직하고 집에서 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지인으로부터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남은 30~40년의 인생을 이처럼 무기력하게 보낼 것이냐?”라는 충고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은퇴 후 계획에 대해, 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 끝에,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제2의 인생을 살고자 다짐하고, 친구를 따라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은 심리학 공부를 통해 심리상담사 1·2급과 음악·미술심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하고 복지관에서 ‘마중물 시니어상담사’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동년배의 부부 및 자녀관계, 친구관계까지 모든 관계 속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경청하고 공감함으로써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심리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남(참여자 / 71세)

주요경력 경찰공무원 33년,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치료사

활동내용 시니어 심리상담활동

참여기관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지 자 체 광주광역시 복구

봉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실의에 젖어 있던 노인들에게 자존감을 찾아 보람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저 또한 때로는 감동과 더불어 진정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과 긍지를 갖기도 합니다. 가끔씩 내담자가 잊지 않고 찾아와 그간의 세상사는



사회공헌활동 Tip

100시대, 은퇴 후 남은 삶에 대한 계획은 무척 중요합니다.
늦더라도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서 활동하면 보다 전문적으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면 따뜻한 정감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은퇴 후 노년에 이르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 또한 보람되고 가슴 뿌듯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내는 노년의 삶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공헌활동으로 제2인생을 계획해야

우리 은퇴자들이 건강하고 보람된 삶을 살려면 하루 빨리 집에서 은둔하는 삶에서 탈피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집에서의 생활에 계획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다면 문제 없지만, 무계획은 나태와 무기력을 낳기 때문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은 삶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사회에 공헌하는 보람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능력이 주어지는 한 앞으로 더욱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봉사로 이루어진 삶이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홀가분함과 동시에 찾아온 공허함

30년이 넘는 오랜 경찰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쉬겠다는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살지?'라는 공허한 마음도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은퇴가 다가올수록 후배들과 저를 비교해보게 됐습니다. 패기 넘치고 활동력 있는 후배들과, 게을러지고 무기력하게 퇴색되어 가는 저를 비교해 보며 자꾸만 작아져가는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극복의 시도 끝에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

조금이라도 극복해보고자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원봉사보다, 적성에 맞게, 웃으면서 출근할 수 있고,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는지 계속해서 고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그 때 사단법인 국제문화교류단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바로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모집 안내였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고민의 해법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속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를 수없이 외쳤습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 매일 설레면서 두근대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버틴 후에 다시금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청소년 멘토에 선정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연영(참여자 / 65세)

주요경력 경찰 30년,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활동내용 생활안전교육 및 청소년 멘토링 활동

참여기관 (사)국제 문화 교류단

지 자 체 대전광역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자부심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처음에는 조금 버겁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할아버지 선생님을 불편해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재직시절의 경험들을 이야기 하며 호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때 겪었던 청소년 사건들을 이야기 해주면서 그 당시의 아이들이 어른이 된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며 아이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있던 자신들의 고민도 조금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던 제 인생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당신, 좀 멋있는 것 같아!'

청소년 멘토링 활동 뿐만 아니라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기본수칙과, 살면서 지켜나가야 할 생활법률을 알려드리는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하면서 처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로서 근무를 시작했던 젊은 시절의 열정과 설렘도 차츰 되살아났습니다.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여태껏 뭐했지?'하는 자괴감 속에서 점차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동에 참여한 후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자부심과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무슨 일이든 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면 손주들은 '저도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말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내는 저를 보고 '당신, 좀 멋있는 것 같아!'라며 웃어줍니다. 이렇게 늙은 나이에도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뒤늦게 알게 해준 사회공헌활동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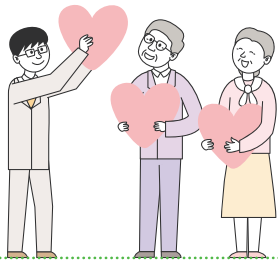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 Tip

늙은 나이에 젊은 친구들을 보며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건 동시에 경험이 많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바꿀 기회를 잡고, 본인의 삶도 바꿀 기회를 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행복돌보미로

행복을 선물하다



홍순철(참여자 / 75세)

주요경력 교수, 영양보호사, 상담자격증

활동내용 상담멘토링 및 사회서비스

참여기관 양평군노인복지관

지자체 경기도 양평군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길의 뿌듯함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쳤던 시간을 보내고 난 후 나의 경력과 상담자격증을 활용하여 평소 관심이 있었던 노인복지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 사회공헌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몇 주를 빼고는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어르신들이 계시는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10여명의 봉사팀원들과 봉사를 준비하는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고는 합니다. '가까운 친척이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을까?'말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것에서 행복을 찾다

준비가 끝나면 맡은 분야의 봉사를 시작합니다. 거의 2시간 동안은 잠시도 여유 없이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행복감 척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인생의 희로애락을 찾아 행복과 기쁨은 함께 나누고 근심과 걱정, 슬픔과 고통은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으로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시는 분은 오랜시간이 걸려도 원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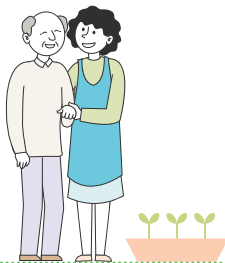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걱정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걱정을 매일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럼 행복의 질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걱정거리 사서 하지 마시고 삶에서 기쁨을 느꼈던 때로 돌아가보자'고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많은 순간들을 이야기하시고 흐뭇해하는 얼굴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상담과 행사 등을 통해 자신들이 국가와 이웃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보람된 행복을 느낍니다. 또한 함께 달려온 모든 분들과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참여기관)

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23번안길 9-5

대표자 유병훈

활동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자활센터이용자및신규이용자상담

참여자 4명

지자체 경기도 시흥시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지원 등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며, 저소득층의 처지와 조건을 개선하고,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토대를 만들어 지역사회공동체 건설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4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도 힘을 받습니다.

자활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입니다. 이 분들을 근로 및 교육을 통해 자립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돕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을 보내면서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 등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전문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센터 직원보다 마음을 편하게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일주일에 1회 센터를 새롭게 이용하시려는 모든 분들의 심리 상담을 맡아서 해 주시고, 이미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2회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말벗과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는 평가를 해 주시는 이용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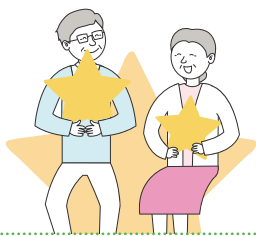
가르쳐주는 사람이 늘어 좋습니다

근로나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지만, 집단적으로 팀워크를 키우거나, 함께 배워야 할 교육프로그램 진행은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분들이 맡아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활에 참여하는 주민들 자녀의 학습지도와 인성교육을 해 주셔서 자활에 참여하는 주민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중 가장 바탕이 되는 마음을 살피 주셨고, 일 할 때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셨고, 가족(아이들)까지 사랑으로 아껴주어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울산여성의전화 부설 울산노인 상담소(참여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9, 3층

대표자 박동주

활동내용 어르신 심리상담

참여자 10명

지자체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들에게 눈높이 맞추기

울산여성의전화 부설 울산노인상담소는 2015년 개소를 시작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심리안정을 위해 전화상담, 면접상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노인상담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상담스터디를 매주 진행하고 노인상담원 양성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활동 외에도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해 구인·구직 채용박람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난타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활동으로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외롭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 분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노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상담을 추진하며 노년에 오는 사회·경제적 상실과 신체적 노화에 따른 우울, 불안, 화병 등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따뜻한 이웃과 교류하며 노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라는 자부심

지역의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찾아가 정서상담을 하는 등 자원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모든 일정을 전부 소화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울산노인상담소의 홍보가 되지 않아 상담업무 활성화를 위해 울산 시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상담소 홍보를 비롯한 상담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힘들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는 저희 노인심리상담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자원봉사자분들이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상담, 홍보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분들께서 노인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워하시는 어르신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와엄마가 행복한 지역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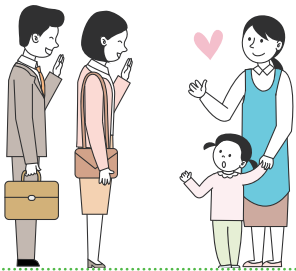
여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사)여성과나눔 보육콜센터는 일하는 여성, 맞벌이 가정의 보육지원과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7년 설립된 사회적기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찾아가는 가정보육사, 문화공간 포그니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화된 보육방법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지역공동체 모임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여성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와 함께 마을공동체활동을 위한 문화공간 포그니를 개원하여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들의 연륜과 경력으로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사회적기업

여성과나눔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참여자분들과 함께 부산도시재생박람회와 어린이 벼룩시장, 자원재생박람회, 도시농부어울장에 참가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마을녹색실천단을 발족하여 참여자분들과 함께 지역주민을 상대로 자연보호활동의 일원인 다양한 친환경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등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귀한 재능을 가지신 참여자분들께서 오셔서 사회적기업의 홍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을 함께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도 혼자 힘으로 이끌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50~70대의 참여자분들의 귀한 연륜이 힘든 이웃에 도움을 주고 참여자분들께서도 보람을 느끼고 계셔 서로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사)여성과나눔 보육콜센터

(참여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안로 59번길 99

대표자 손정은

활동내용 기업 홍보 및 프로그램 진행

참여자 4명

지자체 부산광역시

PART 4

100세 시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 도연명은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는 오늘에 와서보면 틀린 말 같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20세도 청춘이지만, 40세도 청춘이고, 60세도 무언가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춘을 육체적 나이로 얘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기 80세가 넘는 나이에든 연극을 하며 청춘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Silver Youth



교육

Interview

참여자

윤여원 | 정재학

참여기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Case

참여자

박영옥 | 양속희 | 이경혜

윤경자 | 정상분 | 김문자

박선엽 | 박수영

참여기관

무지개 작은도서관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재반지역아동센터

충주열린학교

하비지역아동센터



어르신들의 행복이 나의 기쁨으로

윤여원(참여자 / 67세)

주요경력 교직근무 40년, 인지놀이지도사자격증

활동내용 치매예방교육

참여기관 충남치매예방센터

지 자 체 충청남도

어르신들을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난다고 한다. 오랫동안 가족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지금은 노년이 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는 것이 삶의 보람이라고 하시는 분을 만나러 간다.

진주를 찾게 도와준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천안에 위치한 충남치매예방센터를 찾았다.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인터뷰를 하기로 한 윤여원씨가 센터 관계자들과 열띤 회의를 하고 있었다. 온화한 미소를 띄면서 열정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윤여원씨라는 걸 알아채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 마주 앉은 강의실에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던 않았지만 온갖 프로그램 도구들이 가득 차 있었다.

윤여원씨는 인터뷰 질문지를 미리 받고 “내가 과연 만족할만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지만 기관을 안내한 센터장은 “우리 기관의 진주 같은 분”이라면서 윤여원씨를 소개했다.

“진주가 진흙 속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보물과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윤여원 선생님도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어딘가 숨어 계셨던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진주처럼 빛나고 있는 거죠. 정말 사회가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센터장의 칭찬에 수줍게 얼굴을 붉힌 윤여원씨 사연으로 들어가 보자.

우연히 찾아온 인생의 터닝 포인트

윤여원씨는 아산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태어났다. 마을 앞에 저수지가 있고 산으로 둘러싸인 동네였다. 공부를 좋아했던 윤여원씨는 가난한 집안환경 때문에 어렵게 대학에 진학했다고 한다. “가난한 시골에서 무슨 결정의 폭이 넓었겠어요? 집

가깝고 등록금이 제일 저렴한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공주사대였다.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국어교육과를 택하여 1970년에 입학했다.

“버스로 통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도 그렇게 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 학교 앞에 있는 서점에 가서 돈이 없으니 책만 보고 나왔지요.” 어느 날 서점 사장이 그에게 다가왔다. “깨끗하게 쓴 책을 주셨어요. 그리고선 사지 않아도 좋으니 잘보고 도로 갖다 놓으면 된다고 하셨죠.”

사람에게는 계기가 있다고 한다. 윤여원씨는 “그 순간이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어느 한 명도 포기하지 않던 제자 사랑

사범대를 졸업하고 부여에 있는 한 중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다. 2개월 근무하고 군대에 가야 했다. 단 2개월이었지만 학생들과 정이 많이 쌓인 덕분인지 군대에서 위문편지를 받았다.

제대 후엔 2년간 합덕여중에서 근무한 뒤 모교인 온양고등학교로 옮겼다. “아무래도 졸업한 학교여서인지 애정이 많이 갔어요. 학교에서도 제게 학생부장 역할을 맡겼습니다.” 모난 학생들이 많아서 지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한다. 모든 교사들이 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더 신경이 쓰였다고 한다. 한순간 삐뚤어진 제자들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을 매일 했다.



제자 중엔 꽤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연예인도 몇 명 있다. 윤여원씨는 TV에 제자들이 나오면 학창시절 그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무척 반갑고스럽다고 했다. 평교사로만 지낼 수는 없었다. 연차가 쌓이면서 책임을 맡는 위치에 서게 마련이다. 교감·교장 승진을 위해 벽지근무를 하고, 그곳에서도 학생부장을 맡았다. 그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오히려 적응을 더 잘한다”고 했다. 졸업 후 그 제자들이 찾아올 때 뿌듯함이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예산어고에 근무할 때 온양고등학교 제자들이 찾아왔다.

“주례를 서달라고 했어요. 그때가 주례를 하기엔 젊은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혼냈던 제자들이 찾아와 사정을 하는데 안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사고를 많이 치고 말썽을 부려도 저는 절대 제적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책임지고 졸업을 시켜야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어르고 달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졸업을 시켰지요. 그랬던 제자가 찾아와 주례를 서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를 계기로 이른 나이부터 주례를 썼지요.”

그 뒤 교감이 되어 모교로 이동해 7년을 근무했다.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했다. “교장이 된 뒤엔 서산명지중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시골학교였지만 학생들이 많았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3년 동안 교장으로 일하고 퇴임했습니다.” 예전 교사시절을 추억하며 즐거워하는 윤여원씨가 슬슬 은퇴 후 생활을 들려줬다. 어떤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은퇴 후 시작한 봉사활동

윤여원씨는 퇴임 후 생활이 즐거웠다고 한다. 교장처럼 총괄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면 여러모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기에 퇴임 후 찾아온 자유로운 생활은 그에게 활력소와도 같았다. 하지만 2년여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면서 이 생활에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퇴직 교사 모임에 들어갔다.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냈던 J선생님으로부터 본인이 나가는 모임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았다.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을 위탁받아 졸업시키는 프로그램인데 같이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망설일 틈도 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하니 옛 제자들 모습이 오버랩 되었다. 어려운 환경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며 변해가는 모습에 보는 보람을 느꼈고, 집에서 나와 무언가를 한다는 점 또한 즐거움이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 절대 피곤하지 않는다

어느 날 같은 모임의 Y선생님으로부터 충남치매예방센터를 소개받았다. “그때 충남치매예방센터 원장님을 처음 만났어요. 첫 면담 자리에서 원장님이 ‘나와 주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센터에서 활동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인지놀이2급자격증을 취득했다. “매주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이 현재 하는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작년부터 들꽃센터에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고 있어요. 어르신들 말벗도 해드리고 시도 낭송합니다. 가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갑니다.” 처음에는 다니던 상당 사무실에서 자료를 인쇄했는데 횡수가 많아지니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집에 프린트도 한 대 샀다. “독수리 타법이지만 자료를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교육 받는 분들이 먼저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저는 여러 번 다른 곳에 나가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쩌다 한번 오는 것이니 자료를 간직하고 싶었던거예요. 기억하고 싶은 거죠. 말은 없어지니까.”

윤여원씨는 시,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다. 시에 담긴 의미, 노래에 담긴 사연도 들려줬다. 수강생들이 많이 좋아했다. “70세부터 90세까지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가면 너무 반겨주세요.”

충남치매예방센터는 식사도 하고, 미용도 해드리고 함께 놀이도 하면서 낮 시간에 어르신들을 위탁받아 함께 생활하는 기관이다. 처음 오면 낯설어 하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많이들 오고 싶어 한단다. “저로서는 너무나 뿌듯합니다. 호칭도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형’, ‘누나’라고 부릅니다.

함께 활동을 하고 마칠 때면 어르신들께서 손을 꼭 잡아 주세요. 물론 활동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 시간 동안 노래를 함께 부르면 땀이 짝 흐릅니다. 퇴임하고서 제일 즐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요차불피(樂此不疲)’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절대 피곤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준비하다

윤여원씨가 돌보는 이 중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했다는 92세 Y어르신 이야기를 해줬다. 자식이 있지만 낮에는 센터에 나오는 분이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Y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혼자 깨달음을 얻을 때가 굉장히 많았다





고 한다. “치매예방에 암기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래가사 암기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어르신은 어떻게든 같이 노래를 부르려고 연습하고 오세요. 간병하는 분이 제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르신 혼자서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는 그분들의 건강에도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웃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니까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집중하는 그 시간만큼은 몰입을 하는 것이죠. 그게 뇌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가사나 시를 암송하라고 권합니다.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젊게 사는 데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여원씨는 사회공헌활동이 무엇보다 자신이 활동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교직 재직 시 수업준비를 했듯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한다. “새롭게 다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제가 노래를 즐겨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좋아하는 노래를 여쭙보고 몇 번씩 노래를 따라 부르며 저도 연습을 많이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죠. 또,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이나, 가사의 의미를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냥 흘러들었을 법한 노래가 나만의 노래로 재탄생합니다.” 그는 여기서 만난 어르신들 덕택에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있다고 했다.

기쁨 마음으로 보람된 하루를 산다는 것

“사람은 매순간 부딪힙니다. 그 순간을 기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같습니다.” 윤여원씨도 은퇴 후 우울한 마음에 빠진 적이 있다고 했다.

그때 주변의 도움으로 우연찮게 사회공헌활동을 하게 되었다. “돈을 보고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나가서 내가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지요.” 그런 마음 덕분인지 그는 은퇴 후에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했다.

“저는 걱정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보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그대로 윤여원씨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사회공헌활동 Tip

윤여원 씨가 강조한 요차불피 (樂此不疲) 즉,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절대 피곤하지 않다는 것. 모든 일들이 그렇듯 사회공헌활동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숲과 함께 시작한 제2의 인생

준비된 은퇴를 맞이한다는 것

준비된 은퇴를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보통은 은퇴를 두려움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텐데 “조금 더 일찍 은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사람을 만났다.

사회공헌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정재학씨다. “다른 사람들은 퇴직을 상당히 두려워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 퇴직을 미리 하지 못했을까 싶습니다. 2~3년만 일찍 퇴직했다라면 좀 더 내가 하고 싶던 공부나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퇴직 후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공부해야 하는 분야도 많고 어렵더군요. 나이가 드니 소화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정재학씨가 왜 빨리 은퇴하지 못한 걸 아쉬워하는지 그 까닭을 길게 설명했다. 한두 살이라도 젊었다면 교육을 더 잘 받았을 거라는 얘기다. 은퇴를 어떻게든 미루려는 사람들 속에서 ‘준비된 은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분이 바로 정재학씨였다.

교직생활 35년

정재학씨는 35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2013년 2월 은퇴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네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직업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할아버지의 권유와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교직을 택했다.

1970년에 처음 교직생활을 시작했고 교직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군대에 입대했다.

교직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낮에는 사병과 똑같이 근무하고 저녁 이후엔 재건학교에 나가도록 자대배치를 받았다. 재건학교는 가계상황이 열악해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직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 선생님이 되어 가르쳤던 일종의 야학이다. “학생이 한 80명 정도 되었는데, 학생들 사정이 딱해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 덕분에 학생들에게 위문편지를 많이 받았죠”라며 정재학씨가 흐뭇해했다.

곧 학교 재직 시절의 자람이 이어졌다. 유독 학생들과의 추억에 대해 많이 말씀해주셨다. “학생들과의 유대관계가 끈끈했습니다. 사랑의 매도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진심으로 뉘우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본인 성격과 달리 학생부장을 많이 맡았다고 한다. 교직생활하면서 보람찼던 추억도 있다.

2003년 모 제과회사에서 ‘사랑해요 선생님’이라는 행사로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선생님과의 그 이유를 공모했다고 한다. 우수한 작품을 보내준 학생에게는 1년 동안 장

정재학(참여자 / 66세)

주요경력 교사 35년, 숲해설가

활동내용 숲해설, 환경정화캠페인

참여기관 (사)춘천생명의숲

지 자 체 강원도

학교 재직 시절부터 학생들과 자연탐사를 함께 할 정도로
숲을 사랑했다. 오히려 일찍 은퇴를 염두하고 준비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지금은 숲해설가와 환경보존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학금을, 선생님에게는 해외여행을 보내주었다. 그때 제자의 사연이 채택돼 정재학 씨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과자 포장지에도 사연을 실어주었는데 그 학생과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요즘 같은 학교생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죠.” 이야기하는 정재학씨 얼굴에 씩씩함이 내비쳤다.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다

학생들과 추억이 점점 많아질수록 정재학씨의 은퇴 시기도 가까이 다가왔다. “퇴직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산림교육전문가 교육과정을 받았지요.” 그는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과 자연친화활동을 많이 했다. 학생들과 등산을 자주 했는데 우려하는 교장선생님을 설득하면서 등산을 가곤 했다. 그렇게 등산을 자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숲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숲해설가 교육도 받게 되었다. “어렵기는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방과 후 시간을 투자해야 했으니까요. 3개월 동안 교육과 실습을 받았습시다. 교육 받기 전에는 선생님들과 많이 어울렸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들과 어울릴 수 없었지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퇴직하고 난후 방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재학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탐사대를 진행했다. 매달 두 번씩 토요일에 야외에 나가 자연탐사활동을 했다. 물가에 나가서 수생식물을 관찰하고 산에 자생하는 나무와 풀을 관찰하면서 퇴직하고 난 후 들법한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원래 정재학씨는 퇴직 후 등산을 많이 하고 싶었다. 등산을 하면서 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등산교육강사를 하고 싶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포기했다. 하지만 퇴직 전부터 꾸준히 했던 클라이밍은 계속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겁이 나서 못하고 있지만 가끔씩 체육관을 방문해 인공암벽을 한다. 퇴직 후 춘천에 있는 클라이밍 클럽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숲해설과 자연보전 활동으로 삶의 보람을 얻다

은퇴 후 숲해설가로 활동한 정재학씨에게 ‘춘천생명의숲’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천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로 사회공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정재학씨는 행복했다. 춘천생명의숲에서 진행되는 골프장과 케이볼가 설치 반대 활동을 보면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다. “자연보전 활동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주로 환경보존 활동을 하





고 있는데 최근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나요? 남은 숙제가 복원이잖아요.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지가 생명의숲 활동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정재학씨는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아름드리숲탐사대에서 숲해설을 같이 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학교에 나가 학교의 숲을 이용한 환경교육이다. 여기에서 환경보호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끝나고 나면 좋아해요. 다음 교육에 대해 기대하는 학생들을 보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학교 숲을 이용한 환경교육은 할 얘기가 많습니 다,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좋고 학교 관계자들도 호의적이예요. 내년에도 외달라고 합니다.”라며 흐뭇해했다. 생명의숲에서 매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다. 재작년에는 지역사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했다. 작년에는 장애아 이들, 장애 어르신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자연탐방도 많이 갔다. 올해 중점을 둔 활동은 유해식물퇴치라고 한다. “가시박, 돼지풀 등이 있는데 꽃가루가 문제예요. 알레르기를 유발해서 심각합니다. 이 식물을 제거하는 사업과 함께 양묘장에서 북한에 보낼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묘장은 청평사 근처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수종으로 3년째 가꾸고 있어요. 4~5년 후에 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주로 소나무를 키

우고 있습니다.” 소개해준 가시박, 돼지풀은 외래종으로 한 8m까지 자라고 가시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며 주로 난개발한 장소에 제일 먼저 들어온다고 한다. 그런데 여름이 와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한다. “근처 소양1, 2교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남자 활동가들이 낮을 들고 작업하는데 힘에 부치기는 해요. 한번 나가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빠져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생명의숲에서 하는 활동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정재학씨는 인터뷰 때 보여주려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해식물 제거사업의 퇴치식물을 가지러 일찍 현장에 다녀왔다면서 식물들을 보여줬다. 그 식물들을 보니 그와 춘천생명의숲 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환경정화캠페인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처럼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정재학씨에게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물었다. “장애우분들하고 활동할 때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교직 생활할 때 정재학씨는 장애학생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비장애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하는 통합학급의 담임을 맡은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힘에 부쳐서인지 조금은 힘들다고 했다. “갑자기 이상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 분들이 당황하게 되는데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놀라지 않게 다독여 줍니다. 작년에 복지센터에서 장애우분들과 같이 활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가지 않겠다고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럴 때면 기관 실무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목표한 곳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면 상당히 좋아하셔요. 그 분들의 힐링을





위해서 가지만 끝나고 나면 제 기분이 더 좋아져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하시겠느냐는 질문에 정재학씨는 흔쾌히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 숲해설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전달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앞으로 숲해설은 나무나 식물의 가치를 설명할 때 좀 더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전달과 인문학이 융합되어야 하는 거죠.” 그는 얼마 전 초등학교에 나가 숲해설을 하는데 향나무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향나무가 잎이 두 가지입니다. 바늘잎과 비늘잎이 있는데요. 향나무가 어렸을 때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늘잎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비늘잎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학교생활 할 때 향나무가 바늘잎에서 비늘잎으로 바뀌듯이 다음 성장을 위해 충분히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재학씨는 요즘 초등학교 교육은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현실 생활과 연관시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공헌활동 Tip

퇴직 전 내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미리 준비하는 필요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으려면 내가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주는 것보다 얻는게 더 많은 사회공헌활동

정재학씨가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마디 했다.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주변과 나누는 것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도움을 더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참여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아야 하지만 활동하는 과정에서 힐링과 함께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법인
충청학원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우리또래 노인들이 연극을
보고 사기성 상품구매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극을 합니다.



함께 웃고,
보람을
느끼며

다시 청춘을 꿈꾸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참여기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

대표자 김준환

활동내용 소비자피해예방 교육

참여자 8명

지자체 충청북도

노인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연극을 한다고?

대본은 누가 써 주는 거야? 연극 지도 전문 선생님은 대본을 외우는 게 힘들 텐데... 재미는 있을까?

전문 연극인도 아닌 노인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예방 교육을 연극으로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이런 궁금증은 박금성 연극단장과 이성웅 연극단원을 만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속 시원히 해결됐다. 평균 나이 75세가 넘는 노인들로 구성된 연극단의 사회공헌 이야기에 빠져 시간은 줄 몰랐다.

충북 노인복지의 거점 선도복지관인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충청북도 내 60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충청북도노인복지관은 규모가 꽤 크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 선도복지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뷰 당일에도 많은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충청북도노인복지관은 큰 규모답게 매우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어르신들의 생활고민을 상담하는 행복마실(상담센터), 남성독거어르신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등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다. 5~6월에 진행되는 주요사업만 봐도 복지관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직접 와서 보니 바빠서 전화연결도 어렵고, 인터뷰 요청도 난색을 표하던 박종연씨가 바쁘다고 한 까닭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약속을 하고 갔지만 그는 여전히 바쁘고 정신없어 보였다. 바쁘게 복도를 지나가는 박종연씨를 붙잡고 복지관 이용객인 어르신들은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바쁜 가운데도 웃는 얼굴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답하는 박종연씨는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좋은 예처럼 보였다.

우리 연극단은 71세가 막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인터뷰는 복지관 상담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연극단 단원들 소개를 부탁하자 선글라스를 멋있게 쓴 어른이 먼저 인사를 했다. “내 이름은 박금성이요. 연극단 단장이고 올해 71세에

요. 그 전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었어요.” 옆 어르신이 바로 이어서 소개한다. “내 이름은 이성웅이고, 연극단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나이는 83세예요. 초등학교 교사였고 교장으로 은퇴했어요”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다. “생각보다 연세가 많으시네요”라고 하자, 박금성씨가 이렇게 말했다 “기실인 내가 우리 연극단에서 막내예요. 여성도 다섯 분 있는데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는 많은데, 마음은 다들 청춘이요. 하하하~.” 두 참여자 모두 은퇴 후 얼마동안은 쉬는 게 좋았다고 했다. 그러나, 마냥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마음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걸 느꼈다고 했다. 그래서 복지관도 이용하고, YWCA에서 한달간 소비자피해예방교육 강사교육을 받고 난 후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 연극단원들이 대부분 교육공무원들이예요. 행정직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모두 가르치는 분야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공헌활동도 뭔가를 교육해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성웅씨가 말을 시작하자 박금성씨가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연극단으로 시작한 건 아니예요. 처음엔 우리와 같은 또래 노인들이 사기성 상품판매 피해를 보거나, 보이싱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설명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강연 형식으로 설명을 해 봤자, 노인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재미도 없어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교육의 형식으로 연극을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회공헌활동을 잘 해보려는 열정이 연극이라는 형식을 창조해 낸 셈이다. 박금성씨 말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공직생활, 교직생활을 하며 다져진 이들의 책임감과 열정은 젊은이들 못지 않았던 것이다.

연극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의 연속

그렇더라도 연극이라는 형식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연극을 준비하며 어려움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연극단장인 박금성씨에게서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이었지”라는 대답이 바로 나왔다. 대본이며, 연극지도며, 연습공간이며, 연습시간이며, 소품 준비 등 하나부터 열까지 어려움 투성이었다고. 가장 힘든 걸로 대사 외우기를 꼽았다. “처음 연극하러 나갔을 때는 대사를 잊어 먹어서 애태우던 때도 많았어요. 마음은 청춘인데, 기억력이 청춘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 모여서 3시간씩 연습하고 집에 가서도 대사를 외우곤 했어요.” 대본은 가장 어린 박





금성씨가 썼다. 연습은 매주 금요일 3시간씩 전체가 모여서 진행하고 연기 지도는 서로가 서로의 표정이나 상황을 조언하며 연극을 만들어갔다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우리세대 공감
포인트가 담긴
연극**

박금성씨가 말했다. “내가 만든 대본은 4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막은 약덕 상술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사기성 상품을 만드는 모습이 담겨 있죠. 2막은 판매하는 모습이에요, 상품을 만들었으니 팔아야 할 것 아니야. 뗏다방을 만들어서 노인들을 현혹시켜 고가상품을 강매하는 모습을 담았어요. 현혹시키려고 감언이설하는 모습을 풍자하는 거지. 3막에는 사기성 상품을 산 노인이 집안에서 겪는 난처한 에피소드를 담았어요. 자식들에게, 배우자에게 욕을 먹거나, 말 못하고 끄끙 앓는 모습이지. 4막에는 보이스피싱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사기성 상품을 많이 팔았



다면 요즘은 전화사기로 노후자금을 홀러당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임새 있는 대본 구성과 내용에 놀라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장면을 물으니 그는 “2막”이라고 답했다. 노인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감언이설하는 그들의 모습을 해학적이면서도 그럴 듯하게 표현해야 하는데 힘들었다. 이 장면을 위해 분장도 하고, 마술도 하고 노래도 하고 별 걸 다 했다고 했다. 이 모습에 관객인 또래 노인들이 웃음을 터트리고, 이때부터 연극을 바라보는 관객들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전했다.

“우리 어린 시절엔 악단이나 놀이패가 동네에 와서 굿을 하곤 했어요. 재미있는 마술, 연기 등을 하면서 해학과 즐거움을 주었죠. 우리 세대는 그걸 보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습이 그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래 노인이 망가지고 우스꽝스런 연기를 하니 재미있다고 느끼는 거죠.” 이성웅씨가 연극의 공감 포인트를 설명했다.

상품사기, 보이스 피싱, 우리 세대가 다 경험한 내용 / 충북지역은 도시와 농촌 중 농촌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그만큼 노인 비율도 높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성 상품판매나 보이스피싱 피해도 잦다고 했다. 두 참여자는 “우리 세대



노인들은 다 한번은 겪는 이야기”라고 했다. 피해를 당하고도 남부끄럽거나 가족에게 미안해서 말 못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현실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노인 관객들이 공감하는 반응이 기본 좋으면서도 씩씩하다고 했다.

“고생하며 우리사회를 만들어온 노인들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이 사기를 쳐서 노후 자금을 강탈하는 사회는 문제가 많아요”라고 박금성씨가 탄식하듯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연극을 보고 사기성 상품을 구매할 때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을 때, 연극이 생각이 나서 노인들이 사기를 안 당한다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극을 한다”고 했다. “고생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 대한 동료의식을 연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관 복지사 박종연씨가 느끼는 감동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광역복지관이다. 충북 전체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연극단도 공연을 원하는 곳이라면 충북지역 어디라도 달려가서 연극을 한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박종연 복지사는 “공연장소가 여의치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면 민망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잃지 않고, 보람을 찾으며 연극을 계속 하는 소비자피해 예방 연극단 참여자들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함께 웃고, 함께 보람을 느끼고, 다시 청춘을 꿈꾸다.

연극을 준비하며 모인 7명의 단원들은 이제 가족보다 더 친한 관계가 되었다. 매주 만나 연극을 연습하고 함께 웃으며, 보람과 사는 열정을 느끼는 게 좋다고 했다. 연극단의 요즘 최대 고민은 이러한 활동을 함께 할 연극단원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라고 한다. ‘소비자피해예방 강사 교육이수’라는 문턱을 조금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활동을 도래 노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홍보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고 했다. 대본을 스스로 만들고, 서로 도우면서 연기를 발전시켜 나갔듯이, 연극단이 이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거란 확신이 들었다.

7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소비자피해예방 연극단과 이들을 지원하는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공헌활동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연극이었다.



사회공헌활동 Tip

단체로 하는 사회공헌활동은 팀이 가장 중요해요. 약속을 잘 지키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동료애가 필요하죠.



가르치는 만큼 저도 성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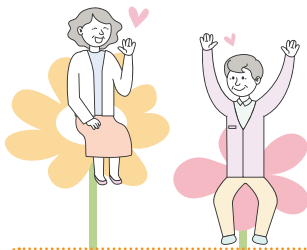
“은퇴 후 뭐 하실 거예요?”

은퇴를 앞둔 어느 날 후배직원의 질문에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돌이켜보니 은퇴 이후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려왔던 삶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85.4세라는데 60세에 퇴직을 하고 여행이나 취미생활만 하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받게 된 ‘퇴직예정 공무원 대상 은퇴설계 교육’은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가슴 설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자원봉사와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세계를 알려주었습니다. 26년 동안 행정공무원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평생교육 업무가 가장 재미있었고, 적성에도 맞았습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변화하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평생교육 분야에서 제2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평생교육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또 다시 이어졌습니다. 고민을 이어가던 중 떠오른 것이 성인 문해 교육이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글을 배울 기회를 놓친 성인 비문해자에게 기초 한글과 영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 문해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이 배우다

2016년 5월 춘의 성인 문해학교를 찾아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교감 선생님께서는 난색을 표하시며 “이력서를 가지고 다시 방문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원봉사도 이력이 필요하고,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꼭 하고 싶다는 생각에 몇 년만인지도 모르는 이력서를 열성적으로 써서 다시 방문을 했지만 교감 선생님은 이번에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원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때마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초등학력인정 교원연수가 열린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가 성심껏 수강을 하며 연수를 마쳤습니다.

은 좋게도 연수를 마치자마자 교감선생님의 추천으로 부천시 관내 복지관에서 한글 1단계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왕초보 문해 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할 때 늘 ‘배운 지식, 기술을 써하지 말고 나눔을 실천하자’고 시민들에게 독려해왔지만 막상 직접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 반, 떨리는 마음 반을 안고 학생 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박영옥(참여자 / 62세)

주요경력 공무원 26년·사회복지사2급, 평생교육사자격증

활동내용 성인 문해 학습지도

참여기관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지 자 체 경기도

제가 맡은 15명의 학생 분들은 70세부터 83세까지 고령의 학습자 분들이었습니다. 걸음도 불편하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지만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학생에게도 뒤지지 않는 의지와 열정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학생 분들의 열의에 보답하기 위해 2시간 수업을 위해 4시간 이상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문해교사 역량과정 수업을 찾아다니며 듣고, 교수법 향상을 위한 교사 스터디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숙제노트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쓰는 분, “집에 있으면 여기저기 아픈데 수업만 오면 정신이 바짝 드네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주시는데 우리가 머리가 안 돌아가네, 미안해요. 그래도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라고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늘 더욱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뿌듯함

2017년 3월부터는 영어 수업도 맡게 되었습니다. 영어반은 4명의 소그룹 반이지만 수준이 서로 달랐습니다. 연수 때 “성인문해 학습자들은 10인 10색이다”라는 강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알파벳도 가끔 혼동하는 분부터 회화를 구사하기 원하는 분, 검정고시를 염두에 두시는 분 등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절충하여 교과서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각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분은 부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신 후에도 왕복 4시간 거리를 달려오셨습니다. 어떤 날은 “1시간이라도 배우고 싶다”면서 수업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들에게 “What are you doing now?”라고 문자가 와서 “I’m cooking”이라고 배운 대로 답장했다며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인학습자 중에는 이 나이에 영어를 배워서 어디에 써먹겠냐며 영어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상생활에서도 상품명 등에 영어를 혼용하여 쓰다보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가게 점원이 “브라운보다 그린이가 잘 어울리세요”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답답했다는 분은 이제라도 영어를 배우기를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자원봉사를 그저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눔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나눌수록 성장하는 자신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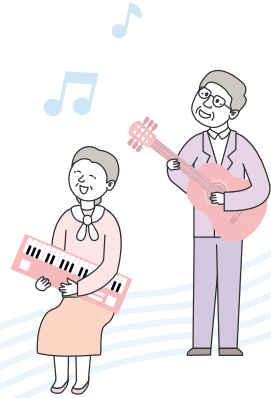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 Tip

경력과 자격을 갖추는 것을 추천!
 사회공헌활동과 봉사활동에도 경력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은퇴 이전부터 자신에게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탐색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력과 자격사항을 갖추시는 걸 추천합니다.



인생 제2막

나누며 사는 멋진 인생을 설계하다



재능 기부의 첫 걸음

저는 25년 동안 부천 지역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지역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연주활동도 하며 평범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에 지역센터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 아동 오케스트라가 탄생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에서 같이 악기 지도 봉사를 하자는 김춘화 음악감독님의 제안에 뜻을 함께 한 것이 저의 재능기부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 교육과정에서 저는 바이올린과 이론 지도를 담당했습니다. 학원에서 1:1 개인지도를 하던 때와는 다르게, 제가 열심히 가르치는 만큼 그룹으로 모인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열정적으로 반응해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뿌듯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재능 기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부천S챔버 오케스트라에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에 앞서 사전 직무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통해 사회공헌의 의미도 되새기고 은퇴 후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사회를 위해서 나누며 사는 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나누며 사는 멋진 인생 2막'을 설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양숙희(참여자 / 54세)

주요경력 음악교육석사, 피아노학원 운영 25년

활동내용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 지도 및 공연활동

참여기관 부천S챔버 오케스트라

지 자 체 경기도

제자의 하트인사와 나의 엄지 척

“앵콜~! 앵콜~!” 박수와 함께 앵콜을 외치는 관객들의 목소리가 마구 쏟아졌습니다. 학생들은 벅찬 마음을 애써 침착한 마음으로 덮으면서 앵콜 공연까지 모두 잘 마쳤습니다. 새끼손가락을 다쳐 제대로 바이올린 연주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어제까지만 해도 엄살을 부리던 한 제자는 연주를 무사히 마친 뒤, 바이올린을 흔들며 “선생님, 저 잘했죠?”하고 손가락 하트를 합니다. 저도 그런 제자에게 엄지를 척 세워주며 미소를 건넵니다.

연주회를 끝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얼굴은 일찍 찾아온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가득 상기되었습니다. 여태껏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모든 것을 모조리 한 순간에 몰입해서 쏟아붓고 난 후의 성취감과 안도감이 아이들의 볼에서 너무도 찬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오케스트라를 꾸려 정기연주회를 열고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 참가도 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한부모가정의 자녀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자신감있게 연주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덩달아 저도 마찬가지로 은퇴 후에 낮아졌던 자존감이 함께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는 다짐

아이들의 서툴지만 열정으로 가득찬 연주를 가만히 듣다보면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지역센터 아이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며 잘 해낼 수 있다고 미래의 자신에게 건네는 다짐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연주할 수 있어 행복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 행복하고 저의 재능을 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어 다시 또 행복합니다.

저의 인생 2막을 지원하고 응원해주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사단법인 유아웨이가 있어서 이러한 행복들을 계속 누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적인 봉사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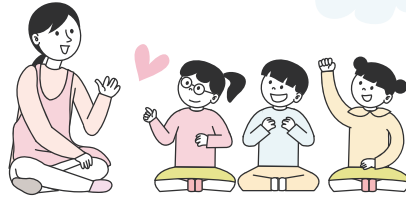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 Tip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사회 경력을 살려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말고 도전하세요. 저처럼 나누면서 스스로 다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기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시작

40년이 넘는 시간을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사회에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 3년 동안은 그동안 수고한 저 자신을 위해 조금 여유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특별한 일 없이 휴식을 갖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받아온 혜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사회를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던 중, 사회공헌활동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인형극을 배우는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직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접하지 못하였던 인형극을 하면서 신선한 재미를 느끼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고되지만 분명한 보람이 있는 보물찾기와도 같은 일

인형극을 배워 실제로 직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찾아다니며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한 인형극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선생님 등 어른들에게도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잡아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연을 위해 부산 시내의 여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버스를 탈 일이 없었기에 잘 몰랐던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환승하는 법까지 알게 되는 등 이제는 버스 활용도 제법 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덕에 저도 사회를 조금 더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셈입니다.

이경혜(참여자 / 69세)

주요경력 초등학교 교사 41년

활동내용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참여기관 부산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 자 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공헌활동 Tip

사회공헌이자 자기발전의 계기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지만, 동시에 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헌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 얻어가는 보람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등의 약 90여개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찾아다니며 아이들에게 인형극 공연을 하는 일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았습니다. 거의 평생을 부산에 살기는 했지만 생전 가보지 못한 길을 찾아다니는 일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하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마주하고, 이 아이들이 웃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고됨을 모두 씻을 만한 보람을 안겨주는 보물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은 40년동안 학교와 집만을 왔다 갔다 하며 우물 안 개구리와도 같은 생활을 하며 살았던 저에게 생생한 경험을 가져다 준 재미있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반짝반짝 순수한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것

요즘 가정과 사회에서 아동학대와 폭력문제가 더욱 이슈화 되고 있고 안타까운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린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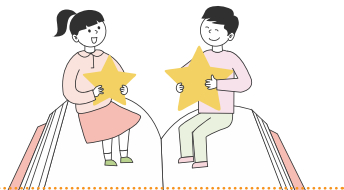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재미있게 인형극으로 보여줄 때 반짝반짝 눈망울을 굴리며 재미있게 보아준 어린이들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맑고 순수한 이 어린이들을 가정과 사회에서 잘 보호해주어 어려움 없이 잘 자라나, 이들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가 잘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선생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 사회공헌활동의 한 분야인 인형극을 하며 즐거워 했던 지난 시간들이 참 소중하게 기억됩니다.



받은 혜택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



윤경자(참여자 / 64세)

주요경력 중등 국어교사 40년

활동내용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글쓰기 지도, 이주민센터에서 한글지도, 상담

참여기관 나들목지역아동센터, 아시아 밝음공동체

지 자 체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교사 생활을 할 때면 슬슬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정리를 시작할 오후 세시,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서 도착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 나들목 지역아동센터.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책을 읽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며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밥을 먹고 꿈을 키우는 곳, 아이들은 이곳으로 와서 숙제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다양한 소질을 키우면서 놀이도 하고, 공부도 하다가 저녁을 먹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40년간 중등 국어교사로 중고등학생들의 국어교육을 위해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퇴직한 첫 해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사회에서 혜택을 받았던 40년에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 마냥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저의 부족한 재능이나마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사회공헌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얼마가 지난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활동을 신청한 곳은 작은 도서관이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해 보시는게 어떨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나들목 지역아동센터와의 행복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길잡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아 신청을 받았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오시게 돼서 기쁘기는 한데... 선생님의 경력에 비해서 관찮을지...” 재직시 중고등학생만 가르친 데다 도교육청 홍보활동, 보도자료 작성, 문인활동 등 다양한 경력이 마음에 걸리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 분의 걱정과 달리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글쓰기를 좋아하고 선생님이 장래희망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나리는 자신이 써놓은 여러 편의 시를 가져와 저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글을 쓰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아프셔서 걱정되는 마음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며 피곤해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떠드는 아이들이 있다면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는 귀여운 하소연을 하기도 하는 나리가 아름다운 선생님이로, 향기로운 작가로 자라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릴 때마다 정말 행복

합니다. 이제 곧 나라가 일년동안 쓴 작품을 모아서 한 권의 시집으로 엮을 예정입니다. 나라 생애 최초의 시집이자, 꿈의 산실로 나라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곁에서 용기와 희망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첫 번째 사회공헌활동의 보람으로 그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아름답고 행복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내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

다음으로 제가 사회공헌활동으로 참여한 곳은 이주민 지원센터 '아시아 밝음공동체'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주민 인권보호 및 지원 사업을 하는 곳으로 재한 유학생의 한글교육 및 이주여성 노동자의 임신·출산 지원부터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이주민 전래동화 출판, 의료봉사활동, 작은 도서관 운영 등 이주민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주로 전직 국어교사로서 한글교육과 여성생활상담 등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로서 생계유지를 위해 시간에 쫓기다보면 한글을 배우러 올 시간도 없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베트남에서 유학을 와서 결혼까지 해서 살고 있는 뜨위안 같은 이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고,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한글도 가르쳐주는 곳이 있어 정말 힘이 되어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라고 말해줄 때마다 행복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성공한 삶이다

주러간다고 착각한 것일 뿐 한껏 받아오는 것이 봉사활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삶을 바라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단체와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평화와 행복을 찾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향기로운 날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품게 되었습니다. '나들목지역아동센터', '이주민 지원센터 아시아 밝음 공동체' 이 두 곳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하는 저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 나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고 말한 누군가의 말에 공감하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늘 감사드립니다.



사회공헌활동 Tip

경력이 많은 참여자의 경우 오히려 참여기관에서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자는 자신의 경력에 대해 겸손한 자세로,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경력에 구애받지 않는 자세로 함께한다면 모두 윈윈하는 사회공헌활동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은퇴 후
잃었던

활력을
다시 되찾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

원예를 전공하고 꽃꽂이 강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남편의 권유, 젊은 강사들로의 세대교체 등의 이유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바쁘고 허둥거리던 제 생활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들의 일로 바쁘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족들에게 난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울한 마음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라앉은 마음을 해소해보려고 새벽 꽃시장에 가끔씩 나가보기도 하고 성전에 꽃꽂이를 해보기도 했지만 헛헛한 마음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사회공헌활동이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해소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소식을 듣자 바로 활동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진로를 찾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플로리스트, 꽃꽂이 강사 등 원예와 관련된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노인분들에게는 꽃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드리는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활력으로 되살아난 나의 활력

떨리는 마음으로 청소년 강의실 앞에 섰습니다. 사실 지금껏 어른들에게만 강의를 해 온 저는 처음 만난 청소년 수강생들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완전 탄판이었습니다. 꽃 한 아픔을 들고 나타난 저에게 자신들이 아는 여러 꽃 지식들이 맞는지 틀린지 질문을 쏟아내며 저를 정신없게 만들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받는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꽃꽂이 강사로, 직업인으로서 살아온 저의 스토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의 비전을 알려주기 위하여 미래 트렌드 분석도 하

정상분(참여자 / 62세)

주요경력 꽃꽂이강사

활동내용 청소년 진로교육 및 노인 원예치료 강의

참여기관 (사)국제 문화교류단

지 자 체 대전광역시



사회공헌활동 Tip

자신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지 겁내는 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해 온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배우지 않아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겁내지 말고 신청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 PPT준비도 하다보니 어느새 저의 우울함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은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일을 하면서 잃었던 활력을 다시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잘 하는 것으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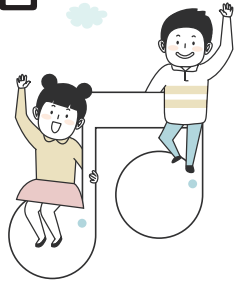
노인원예교실은 청소년 진로교육과는 또 정반대였습니다. 노인원예교실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분들과 함께 조화와 생화의 다른 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저는 교실에서 가장 젊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서 제가 활력을 얻었다면, 반대로 어르신분들에게는 제가 활력을 드리는 선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또 수업 후에 남은 꽃들로 사무실을 장식하면 직원들은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 늘 기다려져요'하면서 기쁘게 반겨주었습니다.

늘 봉사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사회공헌활동은 구세주였습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 새롭게 다른 것을 배우지 않고도, 제가 가장 잘하는 일, 지금껏 제가 해왔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한 일로 활동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끔씩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인 국제문화교류단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이들과 음악이 좋아 시작한 아동센터에서의 봉사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아이들과 음악이 좋아 음악학원을 35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학생·노인상담, 건강체조 등을 배우고 교육을 수료한 뒤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씩씩하게 살아왔습니다.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평생 동안 해 오던 피아노 교습과 은퇴 후 상담활동에서 터득한 노하우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어 지원했고 현재는 양곡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매일 만나며 피아노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힘 음악

피아노 지도를 시작할 당시에는 전체 열두 명 중 두 명만이 피아노를 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음계 보는 법을 아이들의 인식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들과 소통하기가 수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곳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입니다. 아이들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한 아이에게 훈계조로 이야기를 하자 토라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에게 저의 어렸을 적 울보였던 시절이 있었고 놀림거리가 되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마음이 풀렸는지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북한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느꼈던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남아 걸음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마음은 연약한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노래로 정서적 안정을 되찾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가사가 없는 연주곡에 아이들과 함께 노래가사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운 지 두 달 만에 노랫말을 지어서 불렀다는 것이 뿌듯했고 평상시 보지 못했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음악은,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힘 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지원서를 작성한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문자(참여자 / 75세)

주요경력 음악학원운영, 학생·노인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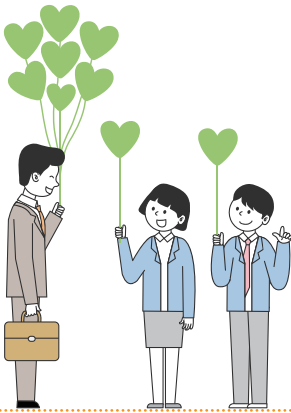
활동내용 아동 대상 피아노 및 악기지도

참여기관 양곡지역아동센터

지 자 체 경기도



더 큰 도전을 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도전



박선엽(참여자 / 59세)

주요경력 교사 34년

활동내용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검정고시
교육지원

참여기관 해솔직업사관학교

자 자 체 강원도

경험을 살린 새로운 도전

34년간의 중고등교사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해보았지만 쉽사리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만난 지인은 사회공헌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소개해 준 사회공헌활동은 비영리기관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30년이 넘게 청소년 교육에 종사해왔던 만큼 저의 경험을 살려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섰 뜻 수락했습니다.

한 발 더 다가가는 노력

많은 이들이 북한이탈 청소년이라고 하면 고정된 이미지를 갖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난 청소년들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우선 각자의 나이대가 다른 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북한에서 살아온 환경도 모두 달랐습니다. 환경이 다르니 북한에서 받은 교육 수준도 모두 달랐습니다.

각각의 특성에 맞는 1:1 수업이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일률적인 교육이 아닌 개인형 맞춤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이 나올 때면 마치 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단지 학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 다른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언어와 문화 학습이 병행되어야 했습니다. 꾸준히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접점을 늘려갔습니다.

틀에 박힌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수업이 끝나면 다함께 간식을 먹으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장래에 대한 걱정을 같이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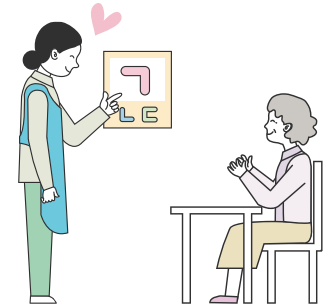
다르기보다는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운 일을 겪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라 마음이 더 쓰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다른 점보다는 사실 같은 점이 더 많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미력하게나마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계속 갖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의 한글 깨우치기에 삶의 보람을 얻다



열떨결에 시작한 한글교실 수업

처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잠깐 쉬었다가 해야지 하고 있던 차에 오랜만에 본 지인의 봉사권유로 실업극복운동본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60~80대 어르신들이 글을 몰라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해서 흔쾌히 받아들여 열떨결에 하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생각해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어떻게 대할까' 싶어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었는데 새삼스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보람인 것 같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워봅시다.” 처음 잡아보는 연필이 어색하고 삐뚤빼뚤 잘 안그려 진다며 서로 멋쩍어 웃으시던 분, 이 나이에 무슨 글을 배우냐고 하셨지만 글을 배우게된 계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든 이분들께 글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름도 적지 못하고 은행원한테 물어볼 때 창피해서 꼭 배우고 싶었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 못했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받아쓰기 뿐만아니라 이제는 책도 읽으시며, 자식에게 꼭 하고 싶었다던 얘기를 편지를 써서 아들 손자에게 보여주신다던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특별한 기대없이 자기만족과 보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었는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교통비와 봉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으면 일자리를 주선했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글을 다 배우셔서 언젠가는 제가 필요없다고 하실날이 올거라 생각하면 섭섭하기도 하지만 자신감을 얻으신 어르신을 보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박수영(참여자 / 54세)

주요경력 일반사무직 29년

활동내용 노인대상 한글교실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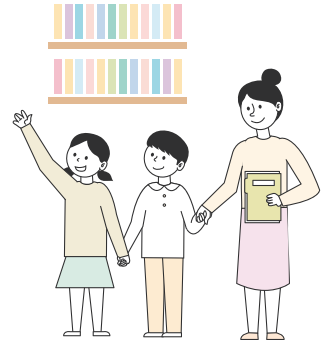
참여기관 실업극복운동본부 부평센터

지 자 체 인천광역시 부평구



작은 도서관에서

키우는 큰 꿈



독서프로그램으로 더욱 풍성해진 문화콘텐츠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복직 복직한 작은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본연의 지식정보 서비스에 더하여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모든 업무를 1명의 관리자가 하고 있던 참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퇴직자의 전문 인력을 통해 도서관 활성화에 도움을 받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우수 전문 인력을 배정 받아 각각 전문성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신나는 그림책 세상', '그림책과 놀아요' 등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다정한 보금자리

참여자분들은 '책속으로 풍덩!' 시간을 통해 방과 후 도서관을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책의 내용을 귀로 들으며 아이들은 보다 쉽게 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차츰 먼저 읽어 달라고 하는 책이 생겼고, 아이들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이 생기면서 아이들은 책과 더욱 가까워졌고 더 자주 도서관에 찾아옵니다. 또 참여자분들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읽고 난 책들을 정리해 주셔서 우리 도서관을 늘 깨끗하고, 아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선생님들 모두 성실하시고, 다정다감하셔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정을 듬뿍 나누어 주셔서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참여자 선생님들과의 만남으로 도서관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함을 배웁니다. 도서관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낄 때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지개 작은도서관(참여기관)

전남 목포시 원산중앙로87 3차
관리사무소 2층

대표자 오병삼

활동내용 독서프로그램진행 및 방과후
아동지도

참여자 2명

지자체 전라남도 목포시



인형극으로 피어나는 아이들의 웃음꽃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참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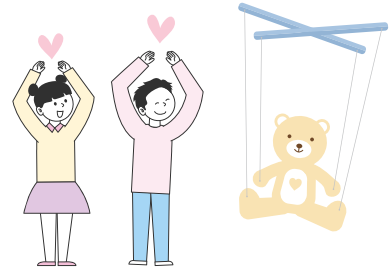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506
영풍리젠시 903호

대표자 이진희

활동내용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참여자 7명

지자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이들에게 눈높이 맞추기

저희 기관은 아동들이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발견, 치료, 교육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아동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아동권익을 증진시키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아동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 인형극을 할 자원봉사단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하여 참여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다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인형극을 통해 아동은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호응 또한 높으며 본 기관의 아동학대예방인형극을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도움에 힘입어 한 주에 두 번씩 관할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방문해서 아동 대상 아동학대예방인형극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경험의 소중함

2017년 한해, 50여회의 공연과 10여회의 간담회를 함께하며 참여자분들과 아동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차례 공연을 하며 본 인형극이지만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었고, 참여자분들은 돌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능숙하게 공연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담당자라는 이름으로 함께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인형극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는 날은 기분도 특별히 좋아요



재반지역아동센터(참여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로74번길
36(재송동) 4층

대표자 김미순

운영기관 인천사회사업재단

활동내용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 특기적성
교육지도(종이접기, 바이올린, 다도)

참여자 3명

지자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특별한 교육을 하고 싶어서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재반지역아동센터는 지역의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청소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습과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아동의 정서적인 안정을 기하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통해 아동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학습 외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고민하던 차에 인천사회사업재단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저희 센터와 프로그램이 맞는 경험이 많은 선생님 세분을 연계시켜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센터 선생님들도 덩달아 기쁩니다.

종이접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아동들에게 종이접기 수업을 해 주셨습니다. 종이접기를 통해 창의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종이접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여 친구들간 친밀도도 높아졌습니다.

숲체험과 다도예절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날씨가 좋은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장산에 가서 숲체험 및 생태교육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다도예절 수업을 하였습니다. 숲이 주는 고마움, 나무와 꽃의 이름과 특징을 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도예절 교육을 받는 날은 센터 전체가 향기롭고 맛있는 차를 마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절도 배우고, 향기롭고 맛있는 차를 마시는 날은 센터의 특별한 날로 자리잡았습니다.

바이올린 선생님은 집에서 따로 레슨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배워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고,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이해하고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예쁘게 종이접기를 한 성과물들이 센터를 꾸며주었고, 향기롭고 맛있는 차가 센터를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이올린이 켜진 날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진 날이 되었고, 센터 선생님들의 웃음도 커진 날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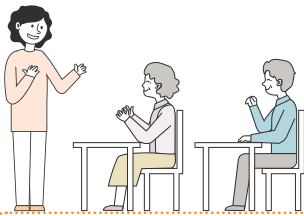
받은만큼 나눌 줄 아는 아이들로 키우겠습니다.

인천사회사업재단에서 연계해 주신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님들로 인해 저희 센터의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특별한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당한 삶을 위한

행복한 도전



충주열린학교(참여기관)

충주시 으뜸로 40, 부용빌딩 5층

대표자 정진숙

활동내용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참여자 3명

지자체 충청북도 충주시

세상과 마주하게 도와준 평생교육

충주열린학교는 2005년 사랑·나눔·섬김이라는 교훈 아래 충북도민의 평생교육을 통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교하였습니다. '당당한 삶을 위한 행복한 도전'을 비전으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기회를 드리고자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한글부터 검정고시 등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을 갖춘 선생님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기쁨을 선물하다

어르신들께 한글, 검정고시, 영어, 컴퓨터 등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어려움을 한평생 짊어지고 계셨던 그분들께서 배움을 통해 얼굴이 밝아지고 가족들과 주변 분들에게 땀땀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기관의 사명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께서 배움에 대한 열정을 안고 오시는 분들께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글과 컴퓨터 수업을 맡아 해주시는 남승진 선생님께서는 주인인식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계시기에 어르신들께서 행복해 하십니다.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학교가 밝아졌고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께서도 선생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학교와 학생이 모두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손이 더해질수록 아이들의 행복도 커졌습니다



하비지역아동센터(참여기관)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123 국제빌딩 3층

대표자 이미란

활동내용 아동 지도 및 글짓기, 미디어 수업 진행, 요리, 급식지도 등

참여자 3명

지자체 경기도

무료 자원봉사자 활동을 사회공헌활동으로 인정받아

하비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 아동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도와 맞춤형 교육, 정서, 심리안정, 문화활동, 야간보호, 생활상담, 가족상담,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세분의 무료 자원봉사자분들이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센터 선생님들이 수업준비에 집중하고, 아이들에게 집중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 주셨는데, 아무런 보상을 드리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6년부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국가의 공식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인정 받게되어 교통비라도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2017년에도 센터 선생님과 참여자 모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 참여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정성을 먹고 자랍니다.

참여자분들께서는 아이들이 센터에서 생활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 주기도 하고, 함께 부족한 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인 지사회발달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절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셨고, 균형잡히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글짓기 수업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하는 힘을 길러주셨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생활지도도 도와주고 계셔서 아이들이 센터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센터도 사회와 참여자분들의 사랑으로 성장

규모가 작은 센터들은 항상 일손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생활지도나, 인성지도 등을 하는데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데 고용노동부,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님께서 더해주셔서 저희 센터도 조금씩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록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란?

사업목적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신중년 퇴직자가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실비를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참여자 : 만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 소지자

참여단체 :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기업, 행정, 공공기관 등

◆ 지원내용(식비·교통비 등 실비 및 활동 수당 지급)

활동실비 : 8천원(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지급

※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 활동시 지급

참여수당 : 사회공헌활동 제공시간에 따라 참여수당(1시간당 2,000원) 지급

◆ 참여시간 : 월 120시간 이내(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운영기관(부록)에 직접신청

※ 워크넷(www.work.go.kr) → 장년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신청하기



Together

순번	자치단체명	운영기관명	주소	연락처
1	서울특별시	(사)희망도레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02-365-9112
		(사)한국직업상담협회	서울 서초구 서운로 13, 1902호	02-584-4220
		(사)한국비서협회	서울 마포구 독막로2, 성도빌딩 503호	02-702-4048
		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	서울 종로구 수표로26길 28(동의빌딩)	070-4949-7904
		한국HRM협회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7나길 18, 1004호	070-4705-2728
		(주)상상우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C동2층 상상 캔버스(동자동,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02-775-3352
2	서울 노원구	노원50플러스센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30길 73	070-7700-7109
3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8길 57	02-363-3930
4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정보센터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603호	051-502-4455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60	051-891-1743
		(사)문화콘텐츠개발원부산지원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20	1688-5759
5	부산 해운대구	사회복지법인 인천사회사업재단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2번길 16	051-782-5005
6	대구광역시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 서구 서대구로 128	053-565-8781
7	대구 동구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대구 동구 동촌로 265-1(5층)	053-955-1953
8	대구 중구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대구 중구 남산로 7길 80	053-254-2562
9	대구 달서구	(사)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침단로 122-11	053-721-6899
10	인천광역시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032-432-1986
11	인천 부평구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032-432-1986
12	인천 계양구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032-432-1986
13	광주광역시	(사)광주광역시 공동리봉사회	광주 남구 군분로24	062-222-5556
		아시아문화진흥원	광주 동구 금남로 231, 4층	062-223-0131
		(재)광주복지재단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 북구 하서로 950	062-603-9820
14	광주서구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43	070-4942-2924
15	광주 남구	지역고용정책연구원	광주 남구 봉선2로 87-3(광일빌딩,2층)	062-652-2070
16	광주 북구	지역미래연구원	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062-225-5751
17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단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988번길 89, 2층	042-485-8211
18	대전 동구	대전동구시니어클럽	대전 동구 계족로 392번길 91	042-632-8505
19	대전시 유성구	(주)글로벌리더십센터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82	042-826-0828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현황





순번	자치단체명	운영기관명	주소	연락처
20	대전 서구	사단법인 행복한동행	대전 서구 둔산중로 38, 307호	042-487-3480
21	울산광역시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울산 남구 대학로 60(3층)	052-277-9984
22	울산 남구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울산 남구 선암호수길 150	052-268-6080
23	울산 북구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 중구 신기8길 7(2층)	052-267-6176
24	세종시	(주)휴먼에듀피아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8길 22-13, 101동 111호	044-868-3651
25	경기도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7길 68-4, 2층	02-738-9772
26	경기 시흥시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7길 68-4, 2층	02-738-9772
27	경기 안산시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7길 68-4, 2층	02-6369-8987
28	경기 수원시	수원시실버인력뱅크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7번길 2	031-252-9017
29	경기 양평군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양평군 양근로 302-1	031-774-6800
30	강원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춘천시 효자로7-1,2층	033-256-8829
31	충청북도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302호)	043-234-0840
32	청주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665	043-267-0866
33	충주시	함께하는 사람들	충주시 중원대로 3401 2층	043-857-0223
34	충청남도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홍성군 흥북면 상하천로 20-1	041-630-1077
35	천안시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041-550-2175
36	아산시	글로벌드림아카데미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041-530-8980
37	전라북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4길 29	063-255-9112
		사단법인 전북경영자총협회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67, 5층	063-282-3393
38	전주시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73	063-227-0857
39	전라남도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061-285-8945
40	목포시	상리사회복지관	목포시 상동로 68	061-274-0068
41	광양시	(주)엑티브시니어	광양시 광장로 2, 아쿠아센터 4-5층	061-761-8777
42	여주시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여주시 전남체육관길 74	061-681-7179
43	경상북도	사단법인 가경복지센터	경주시 동문로 50, 3층	054-773-5002
44	경북 경주시	사단법인 가경복지센터	경주시 동문로 50, 3층	054-773-5002
45	경북 구미시	경북경영자총협회	구미시 1공단로 135(39372)	054-461-5522
46	경북 안동시	지역사회적경제허브센터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054-843-8532
47	경북 칠곡군	경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634	054-979-9546

신중년 지역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우수사례

재능을 나누는 기쁨,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자부심



발행일 | 2018년 7월 31일

발행처 | 고용노동부

주소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기획·편집 | 디자인그룹SNP 02-2274-0329

이 책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고용노동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중년 지역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우수사례

재능을 나누는 기쁨,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자부심

